

2020년
통권 제83호

두 번째 이야기

상담과 치유

Counseling & Healing

Healing Our selves / Healing Family
Healing Our Church / Healing Our Nation

당신이 놓아준 징검다리가 치유상담의 등불입니다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Healing &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www.hcg.ac.kr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
CHRISTIAN HEALING & COUNSELING INSTITUTE
www.chci.or.kr

Counseling & Healing Newsletter

2020년 두번째 이야기(VOL. 83)

계간 <상담과 치유>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잡지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등록일 1997년 12월
등록번호 서울 바 02766
발행일 2020년 7월
발행인 정태기
편집인 정경숙

발행처 사단법인 치유상담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길 10-10
Tel 02.599.2400(대표) Fax 02.599.2468
E-mail chci@chci.or.kr 홈페이지 www.chci.or.kr
편집 및 디자인 (주)블루그린 Tel 02.6941.3320
출력 및 인쇄 천일문화사 Tel 031.955.8100

앞서 수련을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하시는데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까?
내 무의식 속에 있는 나를 만날 수 있을까?
만나고 싶지만 낯선 사람들 앞에서 과연 감추고 살았던 나를 꺼낼 수 있을까?
복잡한 마음으로 이곳에 첫 발을 디뎠다.
시간이 갈수록 베일이 벗겨지듯 희미하던 기억 저편에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하고 만나고 보듬어주는 작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내 문제 전체를 해결할 순 없지만 여러 뿌리 끝에 가장 밑에 깔려서 보이지 않았던,
40여생의 삶에 끈질기게 붙어서 눌렀던 감정 하나를 걷어낸 것 같다.
왜?라는 질문에 이젠 대답할 수 있다.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첫 발을 디딜 수 있다.
이곳을 나가 나의 삶의 영역으로 돌아갔을 때, 새로운 향해가 시작될 것이다.
그 향해가 기대되고 설렌다.

-영성치유수련 소감 중에서-

“한” 치유 2박 3일을 보내며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 생각났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내가 참 예뻐다.
나를 오래 들여다보니 내가 참 사랑스럽다.
내가 그런 존재였다. 다만 잊고 살았을 뿐이다.
바쁜 일상에 밀려 상처와 아픔만 들여다보았다.
이젠 나를 들여다봐야겠다.

-한(恨)치유 수련 소감 중에서-



검색 창에
'치유상담' 입력



사랑의 기억



총장 정태기

얼마전 천안에서, 의붓어머니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9살 남자아이를 작은 여행가방에 7시간 동안이나 감금하여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건에 우리 모두는 공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경남 창원에서 쇠사슬을 아이 목에 걸어놓고는, 집안 일을 할 때만 풀어주는 등, 손에 지문을 없앴다고 후라이팬에 손가락을 지지는 부모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탈출한 9살 소녀의 이야기에 우리는 다시한번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아동학대 소리에 가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주창해온 저로서는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오래전 제가 미국 켄터키 주립정신병원에서 근무할 때에 대다수의 정신병 환자들을 잘 치료하여 집으로 돌려보내면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병이 더욱 심각해져 돌아오는 환자들을 보면서 역기능적인 가정의 환경은 많은 문제의 시발점임을 절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1. 미국의 Michigan대학과 Havard대학은 장수 연구로 활발한 대학입니다. 이들이 공동 연구한 조사에 따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한창 활발히 활동할 50대에 성인병 환자들, 암이나 당뇨,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원인이 바로 어린시절의 아픈 기억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100명 중 81명이 성인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사이는 괜찮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100명 중 91명이 성인병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모두에게서 아픈 기억만을 가진 사람들은 100명중 99명이, 99%가 성인병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픈 기억-아픈 상처는, 평생 우리를 지배하다가 젊음으로만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지나

면 우리에게 치명적 병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은 어린 시절 아픈 기억이 그렇게도 많은데 건강하게 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아픈 기억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픈 기억을 아름다운 기억으로 바꾸었습니다. 만약 내가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을 아픈 기억만으로 그대로 간직하고 살았다면 나는 정신병에 걸렸거나 건강한 몸으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으면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치유받기 전에 애송했던 시, 김경수 목사님의 기억이란 시가 있습니다.

기억이란 참으로 아픈 외마디의 소리
소리없이 소리 지르는 고뇌의 웃음
길을 걷다가도 지나가는 풍경에 귀를 기울이다가도
문득 피어나는 아픈 기억들
돌아다보면 황야뿐인 나의 기억 속에 쏟아지는 폭풍우

그러나 치유를 받고나서 나는 이 시를 다르게 읊습니다.

기억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추억의 보화들
소리없이 속삭이는 사랑의 소리
길을 걷다가도 지나가는 풍경에 귀를 기울이다가도
문득 피어나는 아름다운 추억들
돌아다보면 푸른 고향바닷가에 뛰어노는 동무들



무엇보다도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아픈 기억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용광로 속에 들어가 치유받는 순간, 그전에는 그토록 아픈 기억들이 아름다운 기억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 아버지가 그래서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 속 무서운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로 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바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아버지 하면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36살 때까지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아' 하면서 살았습니다. 젊은 여자와 판 살림을 차린 후 나는 줄곧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무섭고 우릴 싫어한다.' 생각하니, 마음이 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자식들 운동회라고는 한 번도 와 보지 않던 아버지가 그날은 저쪽에서 나와 형에게 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 같았고,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그 짧은 시간, 나의 가슴은 두방망이질을 해대며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와 광주리를 내미는데, 그 광주리 속에는 노오란 병아리 색깔의 참외 다섯 개가 옷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섬에서는 참외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운동회 날, 우리에게 참외를 먹이려고 무릎까지 빠지는 갯벌을 건너서 뒷섬 멀리까지 뜨거운 피약벌을 오가며 참외를 사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까맣게 익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6살이 되는 어느 날 미국 치

유공동체에서 성령을 받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참외 다섯 개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아!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무릎까지 빠지면서 갯벌을 건너갔다 온 아버지의 정성. 사랑이 없는 아버지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참외 다섯 개가 내 마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다는 그 끈을 잡고 보니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랑의 기억들이 연이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도 새삼 떠오릅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스무 살이 되기 전에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서른세 살이 되어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자로서 가장 괴로운 고통을 살던 어머니가 서른넷에 딱하니 형을 낳았습니다.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자 어머니는 거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외가에 갈 때면 꼭 형을 데리고 갔는데, 형은 외가에서 귀염둥이였습니다.

내가 일곱 살 무렵, 하루는 어머니가 형만 외가에 데리고 간다는데 나는 무서운 아버지와 지낼 생각을 하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외갓집에 가고 나 혼자 집에 있는 순간이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외가에 가려면 징검다리를 반드시 건너야 하는데, 나는 그 새벽에 몰래 집을 빠져 나왔습니다. 팬티 하나만을 달랑 걸친 채 2km 떨어져 있는 징검다리까지 와 숨죽이며 새벽녘부터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날이 환해졌는데도 그때까지 두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저 멀리서 형과 어머니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내 가슴은 두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엄마가 나를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죽어도 못 가겠다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심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팬티 하나만을 걸치고 길 가운데 딱 하니 버텨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고는 어머니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면서 형의 손을 놓고는 내 손을 꼭 잡고 그 징검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렇게 나는 외가에 갈 수 있었습니다.

거의 한평생의 시간이 지난 사건인데도, 지금도 그 장면이 나의 눈에 선합니다.

나를 돌려보내지 않고 내 손을 꼭 잡고 외가에 갔던 어머니의 그 따뜻함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2.

그 따뜻함의 기억을 떠올리며, 작은 여행용 가방에서 죽어갔던 9살 남자아이와 부모의 학대를 피해 도망쳐 나왔던 그 소녀가 생각났습니다. 학대를 피해 도망쳐 나왔던 소녀를 구조했던 시민에게 소녀가



데려다 달라고 한곳은 큰 아빠, 큰 엄마집이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요. 집에 안 가고 싶어요. 데려다 주세요, 거기 잘해주시니까. 큰 아빠, 큰 엄마한테 데려다주세요.”

그런데 소녀가 말한 큰 아빠 집은 실제 친척 집이 아니었고, 2015년부터 2년동안 아동복지 기관을 통해 경남의 다른 가정에 위탁되었는데, 이 위탁가정을 소녀는 큰 아빠 집이라 부르며 탈출한 뒤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누군가가 “그래도 이 아이는 인생에서 사랑받은 경험에 있으니 그것을 생각하며 나를 힘이 있던 것 같다. 우리가 아이들 한명에게 한번의 사랑을 주는게 이렇게 중요하다. 마치 식물이 빛을 찾아가듯 사랑을 한번 경험한 아이가 다시 그 빛을 찾아서 학대에서 도망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에 깊이 동감합니다. 잠시 받았던 사랑이 아이에게 희망이었을지 모릅니다. 한 번의 따뜻한 사랑을 받아봐서, 이 상황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다른 삶이 있음을 알았기에, 누군가 안아주고 사랑 준 그 경험이 탈출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위탁가정에서의 기억이 없었더라면 그 소녀도 아마 여행가방에서 숨진 그 아이처럼 학대를 발견한 다른 어른들에게 ‘다시 집으로 간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학대만 받은 아이들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아이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게 전부인줄 알고 모두 같은 생활을 한다고, 학습된 무기력에 다른 삶을 꿈꾸어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사랑의 몸짓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기억의 힘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힘들어 할 때에 내민 작은 손길과 도움이 그 사람이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큰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경험을 하는 것이 이토록 큰 삶의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맛을 본 자는 그 맛을 알기에 그리워할 수 있고, 또 그림기에 그것을 찾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인생의 힘든 시기에 사랑의 기억의 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줍니다. 한걸음 한걸음 그 사랑으로, 그 빛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한번의 사랑, 한번만의 사랑이라도 그 수고를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사도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 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받아줄 때, 우리는 살 힘이 생깁니다.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작은 사랑의 표현과 관심을 보여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사랑의 기억을 남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

정태기 원장입니다.

코로나 19로 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다들 힘들겠지만, 그들 중에 유독 제 눈에는 바로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이 들어옵니다. 작은 교회나 개척 교회에서 교인 한 명이 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나마 있던 이들과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하나 둘씩 교회를 떠나고, 얼마 안남은 교인들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느끼는 아픔입니다.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그들의 걱정, 불안, 절망, 우울, 죄책감 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아픈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전국에 4,000여 명 이상일 것이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아마 실제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밥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마음의 위로와 용기입니다.

이분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서 하늘이 무너져도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은 이런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목회자 한 분을 살리기 위해 2년 4학기 치유상담 교육을 하는데 한 학기 50만원, 4학기 200만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이 2년 과정의 치유상담 교육과정을 통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인들이 일어섭니다. 이 민족과 나라가 변화됩니다.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뜻을 함께 할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후원계좌) 하나은행 396-910001-70005

(사)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는 용서

-영화 「레미제라블 (Les Misérables)」 읽기-



안석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전인치유상담학과 교수

한 편의 영화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치유적인 영화를 보고 나면 힘들고 아프던 마음이 안정된다. 우리는 영화를 통하여 치유의 에너지를 제공받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관을 나온다. 시간이 흘러도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다. 그 영화를 기억하는 그 사람은 영화를 통해 수많은 일상과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할 수 있도록 인도된다. 이런 식으로 한 편의 영화가 이렇게 한 사람의 기억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기억들이 무수히 결합되어 공감대를 형성할 때 그 영화는 역사로 편입된다¹⁾고 말한다. 영화를 보는 방식은 다양하다. 그 가운데서도 영화를 정신분석적으로 보면 또 다른 재미로 다가온다. 정신분석적으로 영화를 본다는 것은 스크린과 대사와 영화 속의 시공간과 음악 등을 통해서 프로이트가 평생에 걸쳐서 고민한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만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글은 후퍼(Tom Hooper) 감독의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2012)에 대한 용서심리학에 입각한 정신분석적인 이야기이다. 이 영화의 원작은 프랑스 소설가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이다.

1. 용서와 사랑을 통해 고귀한 영혼으로

영화를 따라가 보면, 우리는 장발장의 고단한 인생을 만난다. 가석방 상태에서도 범죄자로 낙인찍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 외면을 받았던 장발장. 미리엘 주교는 그를 환대하며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준다. 그런데 장발장은 주교의 환대를 잊어버린 채, 은접시에 욕심이 나서 그것을 훔쳐 달아난다. 잠시 후 장발장은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경찰은 장발장이 훔쳐간 은접시를 쏟아부으면서 주교에게 장발장이 은접시를 훔쳐갔으며, 더 분실한 것들은 없는지 묻는다. 이때 장발장의 얼굴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모든 게 굳은 표정이다. 그러나 미리엘 주교는 인자한 모습으로 장발장을 바라보며, 경찰들에게 말한다. “접시를 훔쳐간 게 아니고, 내가 선물로 이 사람에게 준 거네.” 그리고 왜 선물로 준 은촛대를 잊고 빠뜨리고 갔냐며 오히려 은촛대도 잊지 말고 챙겨가라고 말한다. 그동안 분노와 상처로 얼어붙은 장발장의 차갑고 딱딱한 마음이 미리엘 주교의 용서와 아가페 사랑에 의해 녹아져 내리기 시작했다. 용서심리학을 연구했던 엔라이트(R. D. Enright)에 의하면, 이런 측면에서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는 것이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존엄성과 평온,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 말한다. 아가페 사랑은 인간을 선천적으로 타고난 내재적인 존엄성이 있는 존재로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이다.²⁾ 인간의 마음은 분노가 마음 깊이 자리 잡았을 때 분개(resentment)가 생기며, 그것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³⁾ 장발장이 그랬다. 빵 한 조각을 훔친 댓가로 치른 19년 동안의 감옥 생활이 너무나도 부당하고 과하다고 느껴서 그는 이제까지 분개하고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느꼈다. 분노와 분개로 가득 찼던 장발장, 그가 주교를 통해 용서와 헌신적인 자비를 경험한다. 그 계기로 장발장은 그동안 밀폐된 감옥처럼 차갑던 자신의 마음속에서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그는 빗조차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 같은 마음속에서 자신이 진정으로 용서받고 자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장발장은 기도하는 중 ‘나는 누구인가(Who am I?)’라는 질문을 계속한다.

한 사람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정과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랑을 주고받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⁴⁾ 한 사람이 변화되기까지의 선형적인 용서와 더불어 사랑의 우선성은 정신분석가 프로이트(S. Freud)에 의해서 일찍이 강조되었다. “진정으로 정신이 건강하다면, 모든 인간의 목적은 일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프로이트의 이 말은 21세기 현대정신분석가들에 의해서도 계속 공감되고 있다. 장발장은 미리엘 주교의 용

서와 자비의 경험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Who am I?)'라는 절규 끝에 무가치한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는 한 줄기 빛을 발견한다. 빵 한 조각으로 인해 평생 죄인 된 장발장은 용서와 사랑의 경험을 통해 고귀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동안 심리적 상처와 분노의 감옥 속에서 살아갔던 장발장은 죄수번호 '24601'로서의 삶이 아닌 새 인생을 살기로 작정한다. 그리고 그가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변화하고자 기도했을 때 '새로운 날(One Day More)'이 찾아온다.

2.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는 용서와 사랑의 유산

우리가 만일 지속적으로 사랑이 철회된 상태로 살아가고, 그로 인해 원한을 가지게 되면, 사랑을 빼앗아간 사람에 대해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쟁점은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받던 사랑을 빼앗기면,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 존중감을 잃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나도 가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고, 나를 가치 없게 여겼기 때문에 나는 가치 없는 존재다"라는 위험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후에 우리는 결국 이 세상에 사랑이란 없으며 가치 있는 사람 또한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가치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⁵⁾ 이런 차원으로 보면, 주교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기 전의 차갑게 굳어버린 장발장의 심리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장발장에 대한 주교의 용서는 장발장으로 하여금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용서는 분노나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선을 회복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용서는 사랑을 철회한 사람,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다. 용서는 사랑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정서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울 수 있다. 용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며, 당신이 멀리하고 싶었던 사람이 당신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용서는 다음 세대까지 분노가 전달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용서는 적대감과 복수심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강력한 치료제이다. 용서가 적절하게 이해되고 실천되기만 한다면, 누군가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우리 자신이 느끼는 과도한 분노 감정과 그로 인해 생긴 파괴적 결과를 바꿀 수 있다. 누군가의 부당한 행동 때문에 우리 자신이 자신으로부터 사랑을 철회했을 때, 용서는 미래에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 놓음으로써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사랑의 감정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더 나은 방식으로 사랑함으로써 그들은 용서를 이해하고 실천할 기회를 갖게 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분노나 복수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⁶⁾

3.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신(神)의 얼굴을 대하는 것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장발장을 찾아 수도원을 가며, 그곳에서 임종 직전의 장발장을 만난다. 장발장은 임종 직전 편지 한 장을 코제트에게 건넨다. 그 편지에서 장발장은 자신의 고단한 인생 가운데 용서와 사랑을 배웠고, 코제트로 인해서 그동안 삶이 행복했다고 고백한다. 장발장은 비록 고단한 인생살이를 살았으나, 용서와 사랑이라는 행복감 속에서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고 있다. 엔라이트는 다른 사람을 아가페 사랑하는 경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주의 깊게 떠올리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깊은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사랑이 인간성의 본질이기 때문이다."⁷⁾ 우리는 장발장의 인생에서 비록 고단했지만,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다간 한 사람의 모습을 만나게 된다.

장발장은 코제트와 마리우스 옆에서 임종한다. 임종의 마지막 순간 판틴의 안내를 받으며 평온한 곳으로 이동한다. 상처와 분노 속에서 차갑게 살아가던 그에게 처음으로 따뜻한 용서와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었던 미리엘 주교와도 임종의 순간 재회한다. 영화 스크린에서 장발장의 임종의 순간은 마치 시간의 초월성을 보여주고 있다. 용서와 사랑의 경험은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시간적 초월성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실제로 시간과 공간 밖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물리적 세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현재 여기에서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세상의 작은 티끌마저도 의미 있게 보도록 해주기 때문이다.⁸⁾

실존주의 심리학자 메이(R. May)는 사랑이란 "타인이 존재함으로써 즐거움을 느끼고, 자기 자신의 가치만큼 타인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⁹⁾ 기독교 정신의학자 펙(S. Peck)은 사랑에 대한 메이의 정의에 영적인 차원을 추가하면서 "사랑이란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의 영적 성장을 돕기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⁰⁾ 영화 「Les Misérables」의 마지막 장면인 장발장의 임종의 순간은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다 간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타인에게 의미로 남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인 노랫말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신(神)의 얼굴을 보는 것(To love another person is to see the face of God)"이기 때문이다.

1) 김서영, 『영화로 읽는 정신분석』 (서울: 은행나무, 2009), 16.
 2) R. D. Enright/ 김광수 외 역, 『상처와 분노를 치유하고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용서하는 삶 (The Forgiving Life: A Pathway to Overcoming Resentment and Creating a Legacy of Love)』 (서울: 시그마프레스, 2014), 10-11.
 3) Ibid., 12-13. / 4) Ibid., 7. / 5) Ibid., 13. / 6) Ibid., 15-16. / 7) Ibid., 19. / 8) Ibid., 20.
 9) R. May, Man's Search for Himself, (New York: W. W. Norton & Co., Inc., 1953), 14.
 10) S. Peck, The Road Less Traveled, (New York: A Touchstone Book, Simon and Schuster, 1978), 82.

코로나 그리고 가족



백정미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가족상담학과 교수

2020년 전 세계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감염 위험으로 기능적으로 움직이던 많은 것들이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 간의 접촉이 최소화되거나 제한되어 마음 놓고 만날 수도 없고 모임을 할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당황하고 겁나고 혼란스럽고 긴장되고 외롭고 지치는 등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를 언택트(Untact)시대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비접촉, 즉 대면접촉이 줄어든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집에 머무르게 되었고 재택근무와 화상수업으로 가족들이 함께 집에 있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발견이라는 단어가 유행입니다. 집의 재발견, 가족의 재발견, 일상의 재발견... 등.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상을 살아가며 어떤 가족의 현실과 마주하고 있을까요? 누군가는 언택트에 연결(on)을 접목시켜 ontact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노션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물리적 거리는 유지하되 일상의 삶을 영위하며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연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온택트의 시대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연결과 단절을 지속적으로 경험해가며 연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적용해보고 있습니다.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연구들에서 엿볼 수 있는 흐름 중 하나는 전통적 가족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대안적 접근을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족 변화의 흐름 속에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지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가족이 어떻게 함께 잘 지낼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대표적 가족치료이론의 개념들을 활용하여 코로나시대의 가족의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하는지 몇 가지 제안해보려 합니다.

내 입장에서 적당한 거리가 상대방에게도 괜찮을까?

가족이 함께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서로 융통성 있는 경계를 찾아 적응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경직된 경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너무 융합된 경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틀에 매여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세대 가족치료이론을 발전시킨 Bowen은 가족의 친밀감과 자율성이라는 두 특성 사이의 조화를 분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연결과 분리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거리 두기 적정선은 어느 정도인지 서로 맞추어가는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자신은 가깝게 있고 싶고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는 것은 독립적이고 싶은 상대방의 욕구를 인정해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분리되어 다른 가족이 함께 하고자 하는 욕구를 외면한다면 그 또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를 찾아가는 것, 자녀의 연령에 맞게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노력은 가족들이 함께 있어도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D. Gehart는 가족 간의 경계는 각 개인이 온전히 자신다울 수 있는 충분한 자유와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결속과 친밀감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로 사적인 공간과 시간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고 허락하며 침범당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태도가 가족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신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섬세함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느끼는 외로움, 답답함, 무기력함 등 여러 감정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성 시대에 모두가 경험하는 불안 속에서 어떻게 안정감을 느낄지는 사람마다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관계적 맥락에서 서로의 행동을 이해하고 서로가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관계이

기 때문에 자신이 다른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가족 안에서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면서 서로가 친밀하게 나눌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공간을 존중해 주며 함께 하면 좋겠지요.

우리 가족은 무엇에 익숙해져 있는가?

가족의 일상은 함께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역할들이 존재합니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자신의 일과 더불어 가사노동, 자녀가 있는 경우 돌봄과 교육까지 여러 역할을 누군가는 맡아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재택근무를 실시하며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한 가사노동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서로 인정하며 함께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어느 가족에서는 갈등의 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보다 질문을 던지며 지금 우리 가족은 무엇이 필요할까 함께 고민을 나눠보아야 합니다. 가족은 역할이 유연하게 변화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가족 안에서 구성원들이 담당하는 기능들이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도록 포용이 필요함을 느끼는 시기입니다.

코로나발 가정불화라고 불리는 가정 내 여러 갈등과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나누어 맡았던 역할에 대한 재배치와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어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정관념적 성역할에 의한 갈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상황적 역할 분배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려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간과한다면 가족은 계속 갈등과 위기 속에 놓일 수 있습니다. 가족에서 자신이 가지는 영향력과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적절한 역할을 나누어 가질 때 가족은 직장이 되기도, 학교가 되기도, 식당이 될 수도 있는 복합적 공간으로서 기능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여 가족은 원래대로 편안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기대가 충족되었지만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적절한 적응을 놓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는 ‘네가 달라지면 나도 변할게’라는 조건부적 수용을 전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행선을 달리며 반복되는 상호작용이 오가는 관계에 머무를 수 있으나, 서로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을 전하며 책임을 나누어 갖고자 한다면 함께 협력하면서 균형 잡힌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열고 얘기해볼까?

가족이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나가는 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살펴해보려 합니다. 만약 서로 말이 안 통한다고 느끼는 가족 구성원끼리 요즘 같은 시기에 집에만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상상

되시나요? 경험주의 가족치료사 V. Satir는 인간이 자라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대처방식이 관계에서 대상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서로 상호보완적이거나 대칭적으로 의사소통해 나가면서 때로는 서로에게 맞추주기도 하고 때로는 침묵하게 의견이 대립하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대화의 시간이 늘어났지만 뭔가 좋은 의도로 얘기를 시작해도 얼마 지나 얼굴을 붉히며 감정조절이 안 되는 상황이 찾아오면 누구나 절망을 느끼기 마련이고 그러면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족들이 서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기 바라거나 자신이 원하는 것만 말하고 상대방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으면 마음을 열고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마음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상대방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반응하려면 대화의 과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 상호 간에 상황을 인식하고 서로의 욕구를 존중하면 의외의 다른 면들이 나타나며 그동안 보지 못한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기 위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급하고 빠르게 반응했던 태도에서 전보다 느리고 천천히 자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고 상대방의 말도 그 사람 입장에서 들으며 그 마음을 헤아려보려는 시도는 가족들이 조금씩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서로에게 중요한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은 의미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가족이 함께 서로를 통해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족구성원 각자가 가진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게 감정적인 지지나 인정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가족이 함께 정기적인 의식을 시도해보며 가족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놀이를 함께 즐기며 영화를 함께 감상하며 요리를 함께 만들며 같이 무엇인가 해보는 과정은 가족에게 또 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며 또 다른 기회 앞에서 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족에 대한 생각, 경험, 기대가 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F. Walsh는 가족 회복탄력성에 대해 위기는 사랑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거나, 의미와 성취에 대한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재평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접촉을 몸 사려야 하는 이때에 가족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창조해낼 것인가 기대를 가지며 이 시기를 함께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비록 바깥에서는 늦출 수 없는 긴장, 경계의 고삐를 붙잡고 있어야 하지만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안식처, 마스크를 벗고 편히 숨 쉴 수 있는 공간, 지친 심신이 위로받고 싶은 곳이 가족이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쉽게 가라앉기 힘든 바이러스감염 위험의 두려움을 함께 이겨 나가봅시다.

영성치유수련 소감문

꼭 밥을 먹어야 하듯 꼭 와야 될 곳.

사람을 보는, 사람을 대하는, 내 맘을 새롭게 하는 곳.

동기부여와 새 힘을 얻는 곳.

새 출발점을 만들어 주는 곳.

*** 첫 시간부터 성령의 은혜의 비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 합니다. 강의와 조별 모임에서 계속 눈물이 납니다. 가슴에 아주 큰 바위가 있어서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조그만 돌로 되었어요.

*** 저에게는 마음이 아픈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아들을 살려주세요." 기도하며 출근하는 길에 극동 방송 정태기 총장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치유 상담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들의 아픔은 부모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부터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었던 저의 마음도 역시 치유가 필요함을 느끼는 시간이었으며 아들 앞에서 울지 못하고 막혀있던 억눌렀던 울음을 토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막혀 있던 응어리가 풀리듯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 저는 어려서부터 내 자신이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속에서 살면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나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사람을 택해 가정을 이루었지만 내가 생각했던 사람은 이곳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한 곳에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나의 어릴 적 아픔과 상처를 고스란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정태기 총장님의 상처가 춤으로 바뀐다는 말을 듣고 오게 되어 나를 찾고 행복을 알고 내 향아리를 가져갈 수 있는 기쁨을 찾았습니다.

*** 깨어진 나를 발견하고 내 내면의 상처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아팠는데 이곳에 와서 '진정한 치료는 내 안의 상처받은 마음과 내면 아이를 직면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아이와 자주 공감하고 치유해주며 나를 더욱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같이 아파해주고 공감해주었던 우리 조원들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이곳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움직이지 않던 몸을 움직이게 해주셨고 움직이지 않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셨고 깊은 슬픔 속에서 빠져 나오게 해주셨고 나의 소중한 보물수밖에 없던 아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다시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많은 분들의 고통과 분노, 슬픔을 더욱 이해하고 같이 공감하며 같이 중보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시 힘내서 아이들과 남편, 사업 모두 잘하고 주님 말씀대로 잘 살겠습니다.

*** 처음 참여하게 되어 닫힌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며 내면을 알아가고 상처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치유와 사과, 용서하는 치유를 경험하였습니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상처와 고통이 있고 언제가 되었든 치유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이 곳에 무엇이 있길래 꼭 한번 추천하고 싶다고 했을까? 호기심과 욕망이 생겼습니다. 지으신이의 뜻에 따라 나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와서 보니 채워졌습니다.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나는 보석을 발견하였고 내 마음에 빛이 생겼습니다. 이 마음 변치 않고 영원토록 간직하고자 매 순간 솔직하고 정직하게 임했습니다. 변화를 꿈꾸었습니다. 어리석게 싸우며 살았던 삶을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 위대하고 아름다운 순간과 시간들. 외롭고 두려웠던 나의 어린 시절의 나를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를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줬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맞잡게 해주었습니다. 그 아이를 자주 만나러 오겠다고 약속했고 다짐했습니다. 다섯 살 때 하늘나라로 간 아버지가 그리웠고 보고 싶었습니다. 목 놓아 울면서 아버지와 인사했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 정말 좋은 곳입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 올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눈물 머금고 바라보시는 곳, 그분의 마음이 정태기 총장님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 수고에 너무나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우리 부부도 향아리가 되겠습니다.

*** 뿌리 깊게 박혀있는 상처와 아픔, 웅이가 된 것처럼 뽑혀지지 않는 죄의 근성들. 새벽 기도를 통해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무언가 근원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다독여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야 했음을. 또한 비전을 찾게 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이루어가겠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기 소원합니다.





*** 항상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온전함과 거룩하심을 닮고 싶고 살아가고 싶는데 마음뿐이고 항상 나의 요동치는 믿음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힘들고 지치고 괴로웠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래로는 안 되는데!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점점 가득 차오를 때 나의 한숨과 같은 기도를 들으신 주님!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산처럼 높고 영원할 것 같은 가족의 아픔의 실마리를 풀게 되어 삶에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끌어 가는 고단한 삶이 아닌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방향 전환의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많은 분의 사랑을 받았고 넘치도록 충만한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또 다시 오고 싶어집니다. 몸은 더 가볍고 마음은 더 가볍고, 나도 이제 남의 아픔을 공감하고 많이 울 수가 있겠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지금껏 고치지 못해 아파하던 나를 이렇게 불러 주셔서 사랑으로 치유해주심 감사합니다.

***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슴이 콕 막히어 기도도 하지 못하고 울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목 놓아 울고 싶었습니다. 이 곳에서 주님 인도하시는 손길 따라 마음껏 울었습니다. 내 안의 너무 아픈 아이의 웃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삶이 아파 무섭기만 하여 다가갈 수 없었던 그리운 엄마와도 따뜻하게 만나고 편안하게 보내 드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치유해 주시는 손길들과 따뜻한 조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영성 수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원망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변화시키려고 애썼던 사람이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내가 변화의 대상이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자녀들과 주변 지인들에게 꼭 참여하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 딸의 우울증으로 여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내적 치유 집회에 참여한 경험은 있었지만 이 곳에서 저의 아픔과 상처를 다시 토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린 동생을 보내야 하는 아픔과 미안함,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던 저에게 모든 응어리를 풀어주고 씻어준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딸의 치료를 위해 여기 왔지만 바쁜 나의 어머니의 삶에서 왔던 외로움이 또한 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다시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는 감정의 부분들을 다루어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해주시고 또 다른 시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 속에서 치유 받은 제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의 잉태함을 통해서 생명의 꽃이 피어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사역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 딸의 문제로 딸의 권유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도 많은 상처를 토해내고 딸도 나에게서 받은 상처를 많이 토해내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이 기도와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특히 보자기 들고 춤출 때는 나의 모든 상처들이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딸도 많은 상처들을 이야기로 토해내며 몸까지 떨어가며 했다는 말을 들으며 딸의 얼굴에 긴장이 풀리고 많이 자유롭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 미안해.” “모두 엄마 잘못이 아니야.”라는 말이 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 나의 아픔과 상처만이 제일 큰 줄 알았습니다. 말로 표현 못하고 상상하기조차 힘든 분들의 상처를 듣고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불평불만 속에 살던 저를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고 저를 사랑해주셨던 부모님에게 저의 성장과정이 얼마나 행복을 누리고 귀하게 자랐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구급상 없이 클 수 있었고 돌아가시기 전 제게 쏟아주셨던 사랑에 너무나도 가슴 깊이 부모님께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와 눈물이 있는 치유 상담 수련을 권면하고 싶은 이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 남편과 이혼 결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참석하여 나의 아픔도 내어놓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들어 주면서 나와 남편의 불화로 깊은 상처를 입은 두 아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회복될 우리 가정의 모습을 기대하며 항아리 서약서처럼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 찬양과 울동, 기도와 강의, 리더의 그룹 나눔 과정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의 숨소리를 느끼게 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진솔한 마음의 오픈과 공감 있는 교수님의 강의, 리더의 풍요로운 인도와 조원 간에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는 숨어 있는 속마음, 간절한 마음의 교감에 깊은 깨달음의 시간이었습니다.

*** 전 연구원 일반과정을 (1999년~2000년)마쳤습니다. 그때에 영성치유수련을 통해 일그러진 저의 자아상을 보게 되었고, 세 번의 참여를 통해 저의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쁨을 남편에게도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이번에는 부부 그룹에 신청하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연구원이 존재함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나도 큰 항아리가 되어 내 삶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큰 항아리로 만들겠습니다.

*** 살아도 살아봐도 풀리지 않는 삶의 고난들이 나를 묶어 헤어날 수 없게 하였지만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와 심을 얻게 해주셨고 사랑하는 딸이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장소를 기억하며 승리의 삶으로 주님과 함께 전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상처, 별이 되어 하늘에

신예숙

크리스천치유상담연구원 일반과정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합니다.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 잘되어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지금 이루어 집니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말은 묘한 힘이 있다. 꼭 그렇게 될 것만 같은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 같다. 그러기에 치유상담교육 일반과정에 첫 입학하던 날 정태기총장님께서 강의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중처럼 우리들에게 외치게 하신 이 말은 내 삶의 방향을 터주는 말이 되었다. 아픔과 상처의 흔적들을 먼저 우리 원생들에게 드러내신 총장님의 굴곡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듣던 날, 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

주님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과 시선을 마주쳐 봅니다.

“주님, 저 잘 따라가고 있나요?”

겸허함으로 나를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주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산이 골을 메우고 가진 자가 담 너머로 구걸하는 자에게 돈을 던져 주는 것보다 그 돈으로 담을 허무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일에는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슬픈 일에는 어깨를 감싸 안고 다독여주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주님이 꿈꾸고 바라던 세상 우리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상처있는 우리들이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며 따뜻한 세상 만들어 가면 좋겠습니다.

용이가 길게 패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무도 성장하면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가 저리도 큰 흔적으로 남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내가 치유상담연구원에서 내 안의 상처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들여다 보면서였다.

35년간의 긴 공직생활을 접고 자유인이 된 후 그야말로 반년 동안은 그동안 누리고 싶었던 시간의 여유를 맘껏 누리려고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고 싶어 문 두드린 곳이 치유상담연구원이었다. 이미 이곳에서 일반과정을 공부한 아랫동서의 적극적인 추천도 있었지만 평소 상담공부를 하고 싶었던 내 작은 소망이 쉽게 결정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처음엔 내면의 상처를 끄집어내기 위해 아물어 딱지져 새살이 돋아난 그곳을 다시 헤집어 염증을 유발하고 그 상처를 다시 싸매고 치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강의 방식이 나에게는 참으로 낯설게 다가왔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 기쁨과 슬픔의 씨줄과 날줄로 짜여지는 것을..., 그런데도 그 상처들을 다시 상기시켜 그 슬픔 속으로 다시금 풍덩 빠지는 것이 무엇이 유의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하루 이틀 강의를 들어가며 새롭게 다가온 사실이 있었다. 아물어 딱지져 새 살 돋아난 상처도 있지만 아직도 속에서 염증이 남아 쏘아 터지지 않은 상처도 있다는 것을. 그 상처가 살아 가는데 때로는 내 발목에 족쇄가 되고 여기저기서 상처들이 불쑥불쑥 고개를 내밀어 내 삶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 마음 가장 깊숙이 밀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다시는 고개들지 못하도록 무거운 돌로 꺾꺾 눌러놓은 내게 가장 아픈 것들... 나는 이 곳에서 과감히도 그 상처를 눌러 놓았던 돌들을 들어냈다. 내 마음의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서 얼마나 갑갑했을까?

나는 가장 예민한 사춘기 시절인 열여덟살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를 병으로 잃었다. 그 슬픔이 너무 커서 마흔이 넘어서까지 책이나 드라마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오면 울컥하는 가슴앓이가 나도 모르게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밀려왔다. 그래서 한때는 생노병사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불교에 심취해 보기도 하고 고즈넉한 산사의 조용함으로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 보기도 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은 그렇게 엄청난 슬픔의 상처가 내 삶을 잡아먹을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다.

처음 영성수련에 갔을 때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상처는 무엇인지 써 보라고 했을 때 엄마와의 이별이 나를 못 견디게 하는 가장 큰 상처로 떠오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내 안의 상처가 무엇이 있지? 살아오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상처가 어떤 것이지?”

그런데 참 우습게도 그 때 나는 내 안의 상처를 찾아내려고 무던히도 애쓴 기억이 난다. 오히려 아픔보다 따뜻한 기억들이 세록세록 떠오르는 걸 보고 내가 위선자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사실 나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속상한 일이 생기면 산이나 숲, 자연을 찾아 혼자 거닐거나 사색하는 것을 의외로 좋아한다. 그것은 속상함을 속으로 삭이는 것과는 다르다. 자연은 사람의 마음을 참으로 편하게 해준다. 그리고 많은 것을 내려놓게 한다. 욕심도 내려놓고 마음도 비우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만 남게 한다. 마치 흙탕물에 호스하나 늘어놓고 맑은 물을 계속 흐르게 하면 어느새 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렇게 살아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그 긴 세월 동안 나에게 상처가 없어서 정말 못 찾아낸 걸까? 어찌보면 사랑하는 엄마와의 이별처럼 큰 상처가 어디 있을까 싶은데 그마저도 그 상처가 너무 커서 꺼내 보는 것조차 두려워 아예 내 마음속에 잠금장치를 해 버린 것은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그때 문득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큰 돌은 걸려 넘어지면 큰 상처를 남기지만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사랑과 행복한 기억들이 그 큰 돌을 잘게 부수고 또 부수어 잔돌이 되게 하면 그냥 내가 밟고 걸어가만 한 것이 되나 보다하는 생각 말이다. 사실 엄마를 잃은 큰 슬픔이 나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왔지만 그 슬픔이 나를 짓누르기 전에 우리집에 들어오신 새엄마는 나의 그 큰돌을 사랑으로

잘게잘게 부숴주어 내가 넘어져도 상처나지 않을 조약돌로 만들어 주셨다.

나를 새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새엄마는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 집안에 오직 사랑 하나만으로 선교사처럼 파송된 분이시다. 종가집 만며느리로 인품좋은 엘리트였던 새엄마는 자식을 낳지 못해 집안의 대를 이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 그 집을 나와 혼자 사셨던 분이다. 우리 집안과 인연이 되려고 그랬던지 우리집을 잘 아시던 분이 조카인 새엄마를 아버지께 소개해 주셨고 당시 5남매중 위로 셋인 언니 오빠는 서울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터라 아버지와 언니 오빠는 대학 진학을 앞둔 내가 집안 살림을 하며 학교에 다니는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새엄마와의 재혼을 서두르셨다. 엄마가 돌아가신지 채 1년이 안되었는데 말이다.

그때 집과 학교만 오가며 말도 없이 대학예비고사 준비를 하며 야간자습을 하던 나를 위해 새엄마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로 지은 따뜻한 밥과 반찬으로 도시락을 싸서 동생편에 학교로 보내 주셨다. 그렇게 따뜻한 도시락으로 시작된 새엄마의 그야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은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직장으로 출근하고 결혼할 때까지 한번도 식거나 건너뛰지 않고 나에게 부어졌다. 새엄마의 사랑과 기도가 나의 상처와 아픔을 밀어내고 비로소 내 마음에 엄마라는 존재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나는 알았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그릇도 차야 넘친다는 사실을.

가지 않은 길이 어땠을 거라는 것은 알 수 없지만 지금 생각하면 내가 가장 두려운 것은 새엄마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내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가장 감사한 것은 새엄마로 인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작은 상처들을 그냥 사각사각 밟아가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상처에도 같이 공감하고 아파할 수 있는 것은 어찌보면 치유상담을 통해 내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그 상처들을 애써 잊고 이겨내려고 하기보다 함께 걸어가야 할 친구처럼 여기게 되는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구태여 내보이지 않아도 될 상처를 열어 보일 수 있는 용기를 준 것도 이곳에서 배움을 시작하며 얻은 또 하나의 결실이라 할 수 있겠다.

긴 인생 여정 속에서 상처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마는 각자의 삶 속에서 받은, 태산만큼 큰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내 손톱 밑의 가시만 바라보느라 “괜찮아?”라고 묻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아쉬움으로 다가왔다.

4학기를 공부하며 생각할수록 치유상담연구원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묘한 힘이 있다. 물 고인 우물처럼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상처마저도 별이 되게 하는 힘이 있다. 살아오면서 패이고, 깎이고, 흠집나 작은 소금 알갱이에도 생채기를 하는 우리들에게 그것마저도 토닥거리주며 괜찮다고 말해 줄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주는 힘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2년을 논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매주 오가는 길이 여행처럼 즐거웠던 이유도 이곳에서 공부하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길러진 이런 면역력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지금도 나는 문득문득 엄마라는 단어에 가슴 한켠이 시릴 때가 있다. 가장 소중한 엄마와 이별했듯 상처와도 아름다운 이별을 했다고 믿었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억지로 지우려 긁어대면 오히려 더 진한 자욱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저 친구처럼 “괜찮니?” “나도 괜찮아”하며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소중한 나의 삶, 상처마저도 별로 승화시켜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에 반짝임을 더해줄 것들 믿기에 오늘도 나는 나의 가슴을 토닥여준다.

내 가슴 한켠에서 잊혀졌을 상처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하늘에 달아본다.



흔히들 '유년 시절', '추억'과 같은 단어들은 '아련하고, 그림고, 행복한'등과 같은 형용사와 함께 떠올리곤 한다. 나 역시 어렵듯이 꿈속처럼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고 어르는 모습, 엄마가 머리를 곱게 빗겨주던 기억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억들은 추운 기억들이다.

부모님은 결혼한 날부터 싸웠다고 한다. 부모님은 결혼식후 그날 목을 숙소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셨는데 아버지가 엄마에게 택시비를 안낸다고 욕하면서 싸웠다고 하니 이 날부터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한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

아버지는 찢어지게 가난한 농사꾼의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일제 강점기에는 군 징병에 끌려가지 않으려 짚단 속에 숨어있는데 짚단 속을 수색하는 일본 군인의 칼에 찔릴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고, 육이오에는 빨갱이 색출작업으로 본인뿐 아니라 가까운 친지들의 변절과 죽음을 겪었다고 한다. 전쟁 후 공부가 너무 하고 싶어 서울로 상경했지만 돈이 없어 남의 집에 더부살이를 하며 굶기를 밥먹듯이 했고 가난으로 많은 수모를 당해 자살 시도까지 하셨다고 했다. 이러한 고통과 상처때문인지 아버지는 매일 밤 술을 잔뜩 마시고 동네 골목 입구에서부터 욕하고 소리 지르며 집으로 와서는 대문을 발로 뺨 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과시했다. 그러면 언니, 나 남동생들은 불안, 공포 그리고 수치심으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폭 뒤집어쓰고 벌벌 떨면서 꿈쩍도 안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집은 생지옥이 되었고 아버지는 괴물처럼 밤새도록 온가죽을 들들 뉘었다. 아버지는 언어 폭력이 심했는데 주로 엄마에게 쌍욕과 막



말, 그리고 있지도 않은 일을 실제로 일어났던 일처럼 어거지를 쓰며 덮어씌우는 경우가 많았다. 엄마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소리지르며,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고 이런 와중에 물건 깨지는 소리, 비명소리, 때리는 소리를 밤새도록 이불 속에서 듣고 있는 일이 다반사였다. 내게는 이것이 바로 지옥이고 이 지옥의 고통은 매일 반복되고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과 무기력, 공포로 밤새도록 얼어붙어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가 엄마를 죽이면 어찌나하는 두려움에 휩싸이곤 했다. 나는 상대적으로 약자로 생각되는 엄마가 늘 걱정이었다.

그리고 우리 사남매도 완전 무방비로 당하고 있었다. 언니나, 남동생들이 매맞는 장면을 보면서 내 차례는 언제가 될지 몰라 너무나 무서웠던 기억이 난다. 나 또한 벨트 등으로 맞기도 하였고 한번은 언니랑 훌쩍 벗겨져 한겨울에 눈 쌓인 마당으로 쫓겨난 경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힘 닿는 데까지 엄마를, 동생과 언니까지도 보호하고 지켜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사춘기를 지내면서 아버지에게 대항하고 항의하고 악을 쓰면서 아빠란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협적이고 부당한 존재인지 알리려고 했다. 아빠의 행동을 멈추게 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매일 밤 계속되는 이 악몽이 멈추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추웠고 외롭고 무서웠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내 눈을 바라보고 위로해 주거나 함께 울어주지 않았다. 집안 싸움이 없을 때

는 각자가 거대한 비밀을 간직한 채로 무표정하게 지냈다. 그래서 그런지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주목할 일이 생기면 지나치게 부끄러워하고 불안해서 고개도 잘 못 들고 말도 못했던 기억이 난다. 내 자신이 수치스럽고 내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 같다. 사춘기 때는 학교 길에 집에 가까이 갈수록 불안과 두려움으로 심장이 고동치던 기억이 아직도 선하다. 오늘은 어떤 일로 혼이 나고 어떤 일로 싸움이 일어날지 무서웠다. 동네에선 아버지가 창피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기 부끄러웠다. 친구들이 우리 아버지란 존재를 알면 어찌나 두려웠다. 반면 불쌍한 엄마를 지키고 행복하게 해줘야한다는 책임감과 비례해서 엄마에게 사랑받고 싶고 의존하고 싶은 필요와 욕구로 괴로워하며 엄마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크게 자리잡고 있었다. 이러한 나의 삶의 전반부동안 불안, 공포, 수치, 분노와 같은 소용돌이 치는 감정을 깊이 감추고 사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러던 중 2003년도에 남편과의 오랜 사귄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었으나 내 마음은 알 수 없는 불안, 초조로 늘 떨고 있었고, 남편에게서 아버지의 부정적인 모습이 발견되기만 하면, 이혼하고 말리라는 결심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던 나는 아들을 양육하면서 부모님께 맡긴 채 방치하고 있었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돌봐주시 편찮을 거라고 합리화했다. 그러나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는데 서툰 모습을 보였고 괴로워하는 아들을 어찌 도와야할지 몰라 전전긍긍하던 중에 연구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아들을 돕는 방법을 찾기위해 연구원을 다니기 시작했지만 곧 아들의 문제는 내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안개 속에 가리워져 단편적으로만 보이던 내 불안, 초조의 실체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돌봄받지 못한 나의 내면이 얼마나 황폐해져 있는지가 보였다. 내가 왜 감정 과잉으로 반

응하는지, 수용되지 않을 것을 먼저 염려하고, 긍정보다는 부정을 먼저 생각하는지, 상대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하고, 나의 본 모습이 밝혀지면 사랑과 인정이 철회될까 두려워 하는지, 그래서 솔직한 내 모습과 상대방에게 맞추는 내 모습사이에서 갈등하고...

하지만 이러한 나의 모습을 알게 되고 인정하자 오히려 내 마음은 조금씩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일까? 2018년도에 전문과정 「위기과 회복탄력성」수업을 수강했는데, 유상희 교수님께서 수업을 마치면서 “이제껏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 중 하나”에 도전해 보길 권유하셨다. 그때 떠오른 생각이 수채화 그리기였다. 가끔 그림을 그리면 좋을 것 같다는 바램이 시간과 경제력에 밀려 사라지곤 했는데 이번에는 이 희망이 선명해지면서 구체적인 방안까지 떠올랐다. 나는 바로 도서관에 가서 수채화 그리기에 관한 책을 빌리고 아들이 쓰던 미술용품을 모아, 책을 따라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리는 시간이 무척 평안하고 즐겁고, 그림을 완성한 후에 그 그림을 바라보면 뿌듯하고 내가 너무나 대견했다. 그림 그리기가 너무나 재미있어서 눈 뜨자마자부터 잠들 때까지 날마다 그림을 그렸고 3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미친 듯이 그림을 그렸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번, 바쁠 때는 한 달에 한번도 그리지만 그림 그리는 재미는 여전히 있고 그림 그리는 내가 참 좋다. 교수님의 격려로 평생 모르고 지낼 수도 있던 나의 숨은 실력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찾을 수 있게 된 것도 연구원과의 인연에서 시작된 것이다.

나는 이제 나를 한 인간 '장정주'로 보려한다. 인간이란 말은 참 편하고 공평한 단어 같다. 딸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엄마도 아닌, 한 인간으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그 만큼 자유로워지고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지금도 나는 '강하고 직설적이다', '통제하려한다'는 말을 가끔 듣는다. 이 말들의 의미는 아마도 내 주장이 강해서 타인의 말에 경청하는 것이 부족하고, 그 결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늘 불안과 공포 수치감으로 괴로워하던 나는 지금도 뭔가 불확실 한 것이나, 지배받는 것 보다는 분명하고 통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인간이 어떻게 완벽해 질 수 있겠는가? 이 또한 내 모습이 아닌가? 다만 지금 내 모습, 내 감정과 욕구를 알아차리고 수위조절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내 자신을 다독인다.

나는 매일 아침 잠에서 눈을 뜨면 나에게 묻는다. “경주, 오늘은 기분이 어때? 어떤 느낌이야?” 고영순 교수님께 배운 내 감정을 알아채는 방법이다. 아직도 기분 좋을 때 보다는 기분이 약간 다운된 것을 느낄 때가 많다. 그러면 교수님처럼 커피를 한잔 내려본다. 향기로운 커피 냄새를 맡으며 내 감정을 조금 쓰다듬어 본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키우는 식물들에게 말도 걸어본다. 신기하게 이러한 것들이 내게 위로가 됨을 깨닫는다. 별것도 아닌 일에 감정이 흥수처럼 밀려올 때면 그 감정이 뭘지 이야기 하려 애써본다. 그리고 그 감정으로 떨고 있는 내 안의 어린 나를 만나본다. 이러한 노력은 정태기 총장님께서 이야기해주신 “참외 다섯 개”의 사랑처럼, 나에게도 삶의 곳곳에 숨겨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내겐 이것들이 참으로 크고 좋은 변화이고 나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좀더 여유있게 바라보게 한다. 연구원에서 교수님들의 가르침과 만남이 없었다면 이런 일들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의 존재처럼 연구원은 내가 인생이란 무대에서 자유롭고 용기있게 살 수 있는 힘을 준다. 에너지가 떨어지고 마음이 지칠 때, 돌아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그렇기에 삶의 어두운 골짜기에 처할 때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연구원의 사랑하는 교수님들, 7년간 함께 울고 웃었던 학우들 그리고 지금의 내가 있도록 끊임없이 동기부여가 되는 남편과 아들에게 무한 감사를 전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아이를 깨고 나오는 아픔

김홍구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전인치유상담학과 3학기



한국에 코로나 19가 한참 기승을 부린 2월 말, 우리 삼형제가 한 식당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 곧 육십을 바라보는 나와 두 살터울의 이란성 쌍둥이 동생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다. 술잔이 오고 가면서 삼형제가 어린시절 기억의 토막중 주로 매를 맞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둘째가 이야기하였다. “형 나는 형이 맞는 것이 너무 두렵고 떨려 다음 차례인 나는 일부러 코에 손가락을 넣어서 코피를 낸 적이 많았어.” 그래 둘째 너는 항상 그렇게 많이 아팠던 것 같애! 그래도 셋째 너는 엄마에게 맞은 기억은 거의 없지 않니? “형!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맞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맞는 것 보고 기절한다는 것, 그게 나였어” “그래, 맞아! 셋째는 큰 형이 혼날 때 항상 옆에서 울고 있었어.”

많이 맞고 자랐다. 삼형제중의 장남에게 시집살이의 한을 어머니가 푸신 것도 있었을 것이고,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밖으로만 나돌던 나 스스로도 맞을 짓을 많이 했을 것이다.

나는 어린 시절 증조부모와 모두 함께 생활하는 엄청난 대가족의 종손이었다. 할아버지는 대구에서는 꽤 유명한 근대사를 대표하는 자유당 정치인이었다. 세상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거목 밑에서는 다른 나무가 클 수 없다. 영양분을 나눌 여유가 없다. 자연의 이치이다. 자수성가한 잘난 아버지 밑에서는 아들이 잘 되지 않는다.” 영조와 사도세자가 그랬고,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의 스승이었던 유의태의 아들 유도지가 그랬으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관계도 시대와 직분만 달랐지 그랬다. 이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은 ‘호부견자(虎父犬子)’ 즉 “호랑이 같은 자신에게 개가 태어났다”는 것이다. 할아버지는 어린 손자인 나를 앞에 놓고 “나는 뒷글을 배워 말글을 써먹는데 네 애비는 말글을 배워도 뒷글도 못 써먹는 위인이다”며 아버지를 욕하였고, 아버지는 평생을 그런 ‘호랑이의 말에 갇혀 개의 틀’ 속에서 사셨다.

정치가 집안의 가세가 기울어질 즈음 할아버지는 아버지를 정략결혼 시키려 하셨다. 그런데 어느 날 선을 본 아버지의 마음에 어머니가 꽃히셨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가난한 집안이었던 어머니가 ‘너무 약해 보이신다’는 명분으로 반대를 하셨다.

어머니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지만, 아버지는 이러한 할아버지의 격렬한 반대를 저항할 수 없어 몸져누우셨고, 얼마나 많이 아팠던지 할아버지는 고집을 꺾으셨다. 시아버지의 반대로 무산될 뻔한 결혼, 어머니는 가난한 집안 딸이라는 열등감을 “내가 보란듯이 이 집안에서 살아 남아 참 관찮은 며느리를 보았구나” 이 소리를 듣고야 말겠다는 우월적 목표로 바꾸었고 실제로 어머니는 정부에서 주는 효부상까지 받았다.

이렇듯 어머니가 스무명 가까운 대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아이를 낳고도 제대로 안겨 볼 수 없었던 나는, 약간은 방치된 아이였고, 짜증이 많았다. 더욱이 아버지는 늘 밖으로 돌았다. 무서운 할아버지를 피하느라 사람과의 관계 전반이 왜곡되면서 평생 형제를 포함, 자식에게까지 소리를 못 내셨다.

둘째 동생은 지금 키가 190에 100kg이 넘는 거구이다. 그러나 태어났을 때 워낙 젓과 모든 것이 모자랐던 탓인지 늘 병약했고, 어머니 치마를 잡고 다녔다. 둘째가 그나마 바쁜 어머니를 차지하는 바람에 셋째는 할머니 차지였다. 둘째는 응석받이로 자신을 보호해버렸다. 쌍둥이가운데 바쁜 어머니를 그나마 붙들고 있을 수 있는 방법으로- 늘 아프고, 스스로 코피를 내고, 오줌을 싸는 것으로서 불안, 두려움, 열등감을 그렇게 표현하고 바쁜 어머니의 관심을 그나마 받을 수가 있었다. 문제는 셋째였다. 누가 봐 줄 사람이 없었다.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도망가면서 만들었다. “암전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랐고, 성격 자체가 온순했다. 입을 꼭 다물고 살았으며, 매사에 순종 그 자체였다. 그것이 문제였다. 그 암전함은 분노를 누른 억압이었고, 화를 억누른 순종이었다. 게다가 집안의 형편이 가정 어려운 때 태중에서 가진 어머니의 불안과 초초함이 전해지면서, 누구에게도 격려와 공감을 받을 수 없는 대가족의 회오리 속에서, 그 아이는 상처를 꼭꼭 숨긴 채 성인 아이가 되어 버렸다. 부부관계, 부모관계, 형제관계, 모든 대인관계에서 그 문제점이 청소년 시절 가출을 시작으로 중년기인 지금까지 마구 터져 나오고 있다. 부모와 형에 대한 엄청난 양가적 감정이 있으며, 항상 이중적인 잣대로 사람과 세상을 판단하고, 감사와 미안함의 표현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가 많다. 결국 본인의 입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라고 표현을 한다. 상담 공부를 하기 전에도 나는 동생의 이러한 증상에 대해 일부 알고 있었

고 걱정을 하였다. 셋째는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아픔의 기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현실의 광풍이 그 아이를 휘감아 버린 것이다. 조부가 생전에 아버지를 비난하시면서 그 뒤에 꼭 붙이시는 말씀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흥구는 날 닮아서 굉장히 큰 인물이 될거다.” 바로 이것이다. 굉장히 큰 인물은 아닐지라도 내 자존감은 할아버지를 닮았다. 문제는 닮지 말아야 될 것도 닮은 데 있다. 할아버지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이며, 호령을 굽히지 않는 그 성격이 한 세대를 건너뛴 나에게 많이 유전됨으로써, 좋은 면에서 강한 리더십으로 내게 남아있지만 역기능적으로 나의 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공부를 하면서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느끼는 감정과, 나의 아들이 내게 느낀 감정이 동일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상담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점이 세대 전수과정인 한 세대를 건너 닮은, 즉 할아버지와 내가 많이 닮았고, 아버지와 내 아들이 많이 닮았다는 사실이다. 기질도 상처도 그렇게 전수가 되었으며 결국 자존감과 이기심이 비교적 높은 아버지들이 성숙한 아버지가 되어 아들을 지켜 봐주고, 용기를 부여해 주지 못하고, 관심과 집착을 구분 못한 아버지들의 간섭은 자존감이 낮은 열등감을 가진 아들들을 만들고 말았다.

나는 현재 치유상담대학원 3학기 석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중국 선교 한 팀을 마치고 2018년 12월 중국공산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추방당한 선교사다. 그리고 20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간 교포이다. 2018년 중국에서 7년 만에 선교를 마치고 밴쿠버로 돌아와 31살 아들과 제대로 한 울타리에서 생활한 것이 거의 12년만인 것을 나는 간과하였다. 12학년 즉 19살의 아들로 생각하면서 30살이 넘는 아들을 나는 해 온대로 대하였고, 아들은 고등학교 이후 부모가 선교사로 떠난 시간까지 12년의 시차동안 아주 독립적인 청년으로 자라 버렸다. 억압적, 가부장적 문화에서 자란 조부를 닮은 나와 이민사회에서 한

국제 캐네디언으로 자란 아들과 성장과 문화적 차이를 인정을 못한 채 아버지는 반항을 한다고 여기고,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는 권위만 강조한다고 생각하다 보니 충돌이 일어났다. 아들의 감정표현은 평생 처음 겪어본 방식이었다. Raw material(날 것)을 건드릴 때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직 치유상담대학원 공부 전이었던 나는 날 것을 토해내는 아들을 보면서 난리가 난 것처럼 행동을 했다. 아버지인 내가 가진 권위는 할아버지처럼 힘의 불균형을 만들었고, 그 불균형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아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미처 못했던 사춘기를 지나 이제 31살에 뒤늦은 저항과 더불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경우 칸트의 표현으로 하자면 미움 받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인간에게 있어 극히 자연스러운 욕망이며 충동인 “경향성”에 순종하였고, 아들은 이 경향성에 저항한 것이다. 아들로부터 격렬한 저항을 당한 나는 당시엔 무척 놀라고 당황했다. 그러나 이제 이 상담공부를 하면서 돌이켜보면 그렇게 할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저항 한 번 해 보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으려고 순응하신 아버지의 삶을 돌아보면, 아들의 행동이 오히려 너무나 다행스럽고 건강한 것이 아닌가! 올바른 저항으로 용기를 내어준 아들이 대견하고 고맙기까지 하다.

대학원 총장인신 정태기 교수님은 늘 자신을 본 만큼 남의 아픔이 보인다고 하신다. 그런데 학교 교과목이 대부분 자신을 반추하지 않고는 안되도록 짜여 있는데다 사실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은 혹독하리 만치 아프다. 알을 깨고 나오는 아픔은 깨 본사람만이 알 정도로 가슴이 아리다. 때로는 그 아픔이 두려워 가끔은 안 아픈 척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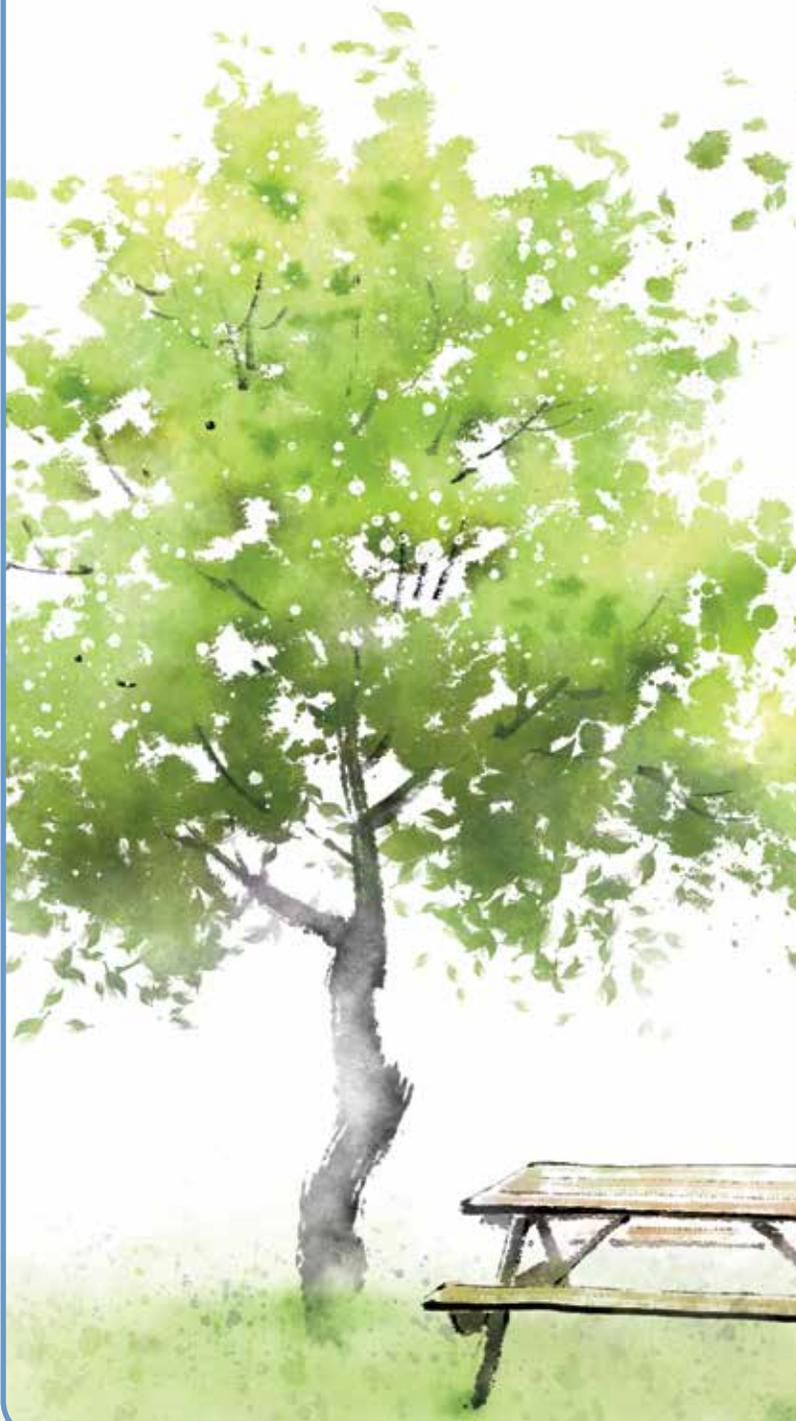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항상 정태기 총장님은 이 질문을 앞세우신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고 있고, 절대 다시는 돼지가 된군 그 구덩이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며, 이전에 뒹굴었던 그 잔재 속에서 나로 인해 가족으로 인해 주고받은 상처더미를 함께 울어주며, 꺾매고, 보다듬어주는 과정이 이 학교의 특징이자 장점인 전인치유이다. 내가 2018년 치유상담대학원공부를 위해 한국에 왔을 때 “형은 우리집에서 항상 특별 대우였어”, “형 때문에 내 인생은 항상 2류였어”라는 말과 함께 셋째는 나에게 단절을 선언했다. 혼자서 서울생활을 하고 있던 그 동생을 2020년 2월 다시 만났고, 나는 그날 몇 십년간의 금주를 끊고 삼형제가 늦도록 술을 마셨다. 그날 저녁 셋째네 원룸에서 긴 밤을 함께 보냈다. 할아버지만큼 형이 미웠다고 울먹이며 이야기한다.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는 두사람이 부러웠고, 집안에서 가장 힘이 없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지지를 받음으로 스스로 제 2세력군으로 전략한 자신도 증오했다고 한다. 가족체계에서 항상 불공평과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그 대상이 세상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약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하며, 셋째는 밤새 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하염없이 울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3:1~2) Harley(나의 영어이름)는 나의 남은 생애동안 우리 가족 개개인은 물론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의 정체성과 비전과 성장에 초점을 둔 치료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치유자가 되기를 소망한다. 40년을 가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신 어머니의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며, 바라기는 사랑하는 스승 정태기 총장님과 교수님, 학우님들의 헌신의 현장과 치유의 현장인 이곳에서 계속 힘을 얻기를 바란다. 그분들의 헌신과 섬김이 오늘 나를 만들었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아픔이 변하여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동생을 포함한 모든 가족들과 함께 춤을 추는 인생으로 살아 지기를 소원한다.

슬픔에게 자리를 내어 주라

자유



나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가난과 함께 자랐다. 이 가난은 어릴 때부터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나를 부자유하게 만들었다. 삶의 '부자유' 뿐만이 아니라 감정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감정'을 낳았다. 가난이 빚어낸 상황 앞에 나는 적절하게 감정을 표현하거나 느끼지 못했고, 감정에 마취주사를 맞은 것처럼 감정표현이 무뎠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슬픔과 아픔, 좌절감, 부끄러움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일어날 때도 이러한 감정들은 나에게 있어서는 가난을 드러내는 부정적인 것들이었기에 이러한 감정들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내야 할 긍정적인 삶, 대단하고 대견한 삶인 것처럼 상황은 그렇게 흘러갔다. 슬프고 아픈 감정들은 덮어두고 감추는 것이었고, 이것이 내가 그 때 그 환경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자,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삶이었다.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내 삶의 '슬픔'도 표현해야 할 것이 아니라 덮어버리고 감추어야 할 것, 빨리 잊혀져야 할 것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슬픔은 자연스럽게 드러내야 할 것이 아니라 감추어야 하는 나의 감정이었다.

내가 성인이 되어 경험한 사랑하는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그러했다. 해피엔딩 수업을 들으며 할머니의 죽음을 참 많이 생각했다. 할머니에게 나는 사랑받는 손자였다. 내가 자란 어렵고 힘든 환경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셨기에 할머니께서는 언제나 공휴일과 사랑으로 나를 풀어주셨다. 내가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후에도 그 사랑은 여전했다. 멀리 떨어져



있어 1년에 몇 차례 밖에는 인사드리지 못하는 손자였음에도 할머니께서는 내가 갈 때마다 할머니 바지 속에 꼬깃꼬깃 모아두신 돈을 내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책 사봐, 맛있는 것도 사먹어” 하시며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 이렇게 동일한 사랑을 부어주셨던 할머니께서 85세, 어느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다. 나는 할머니께서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 할머니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확인하는 그 시간이 마지막 예배가 된 것이다. 그리고 얼마 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나는 지방의 부모님 택으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루었다. 그 장례식은 분명히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할머니의 장례식이었다. 나를 재워주시고, 안아주시고, 마음으로 흘리던 나의 눈물까지도 닦아 주셨던 할머니의 장례식이었다. 마음이 너무 아팠고, 너무 슬펐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슬프고 아픈 감정을 표현하기도 전에, 나의 슬픔은 이미 덮어두고 감추어야 하는 슬픔이 되어 버렸던 것이다. 정말 슬펐는데 그 슬픔을 끌어올릴 힘이 나에게는 없었다. 장례식과 그 이후에도 슬픔에게 충분한 자리를 내어 주지 못한 채 나는 집으로 왔고 어느 때와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 해가 흐른 뒤에 접한 해피엔딩 수업을 통해, 1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죽음”을 가까이 하면서 가난으로 인해 마냥 덮어두고, 묻어두기만 했던 상실에 대한 슬픔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장례식장 바로 그 앞에서의 슬픔까지는 아닐지라도 나는 당당히 슬픔에게 자리를 내어 주게 되었고 나를 충

분히 할머니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슬픔에게 자리를 내어주자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상실의 아픔을 겪은 가족들과 함께 하거나 그들의 슬픈 이야기를 들을 때면 그들의 슬픔이 나의 슬픔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었다. 이전보다 좀 더 가까이서 함께 슬퍼하고 좀 더 그들의 아픈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여유가 내 안에 생겨난 것이다. 내가 죽음 앞에서 당당히 슬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누군가와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세이를 마무리하며, 아니 해피엔딩수업을 마무리하며, 나는 “죽음 준비가 삶의 준비”임을 다시 한 번 내 삶에 새기에 되었다.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하루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더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요즘 찬송가 315장의 가사 중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내 삶에 늘 머물러 있다. 내 삶에 죽음 준비가 삶의 준비가 됨으로 그 영광의 나라가 너무 궁금하고 기대가 되기 때문이다.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매일 영광의 나라를 기대하며 죽음을 준비해야겠다.

내 마음을 위로 받고 싶다

부부학교 참여자: 이쁜남자(별칭)

내 별명은 안술이다. 언젠가부터 나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술을 마시면서 교만함과 아집, 거짓이 내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교회 안에서는 순한 양이지만 교회 문밖에만 나오면 내 마음은 곧바로 일그러졌다. 명령조의 말투와 거짓된 말들이 내 귀에 들려오면 나는 반사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결국에는 폭발한다.

가게에서 일하다가도 프라이팬이 날아가고, 손에 들려 있는 것은 다 던졌다. 새벽 세, 네 시에 일이 끝나 집에 가서도 소리소리 지르고 고함지르기가 일쑤였다. 폭발하면 소주 한 병을 대접에 따르고 물마시듯이 별걱별걱 마셨다. 음주 백일 정지 후, 또 소주 다섯 병에 맥주 세 병을 먹고 집에 왔다. 다음날 아침 아내가 없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어디에 주차시켰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결국 찾지 못했다.

이런 생활을 사, 오년동안 해왔다. 음식점 이십년 생활에 불만과 울화만 마음속에 쌓이고 나는 점점 매사에 부정적이게 되었다. 치유 받는 과정에서도 무슨 말라빠진 사랑 결핍이냐고 생각도 했다. 매일 음주와 고성 반복이었지만 술이 깨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새침이 가 되고, 여자 앞에서는 말도 못하는 바보가 되었다.

이런 나에게서는 아내도 모르는 아주 어릴 적부터의 죄 문제가 있었다. 나에게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과 그 죄의식이 있었고 그

것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다.

몇 년 전 나는 주식을 하다 깡통을 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부정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가정은 점점 무너져갔다.

이런 상황의 나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아는 지인의 소개로 동산가족센터의 부부학교를 신청하게 되었다. 내가 부부학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술을 안 먹는 것이었다. 온 가족 앞에서 술을 안 먹겠다고 약속을 하고, 술을 먹을 시에는 손을 자르겠다고 다짐까지 했다. 그리고는 시장에서 작두칼을 사오기까지 했다. 정말로 자를 생각이었다. 어쩌다 아는 사람이 술을 마시자고 해도 절대 한잔도 안마셨다. 몇 개월 동안 정말 한잔도 안 먹었다. 꿈속에서 술을 먹고 휘청거리는 꿈을 꾸고 일어나서 내 손을 더듬거린 적도 있다. 출지에 불구자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나의 잘못으로 온 가족이 망가졌다.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우리 집 딸 셋, 아들 하나, 막내아들인 중3짜리 녀석은 벌써 코뼈가 두 번이 나갔다. 내가 방황하는 동안 아들까지 망가져 갔다. 나는 술 먹고 휘청거리지만, 이 녀석은 술도 안 먹고 휘청거렸다. 동네 아이들은 물론 학교에서도 아들 녀석 기분에 따라 교실 분위기가 달라졌다. 한번은 하급생 한명을 때렸는데 그 녀석이 불량 서클에 들어있는 녀석이어서, 서클 녀석들이 쫓아와서 우리 애를 때린 적도 있다. 또 고등학교 애들 세 명이 지나가다가 담배 연기를 뿜고 간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참지 못한 아들은 쫓아가서 고등학생 세 명과 싸운 적이 있다.

큰 딸은 유학까지 갔다 와서 졸업반인데, 얼마 전 나에게 탄축을 걸었다. 딸아이는 완전히 폭발하기 일보직전이었다. 나에게 따지고 드는데 할 말이 없었다. 옛날 같으면 내 성격에 딸아이는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무릎을 꿇었다. 너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아빠에게 분풀이를 하라 했는데, 딸아이가 하는 말은 아빠가 더 높고 힘없으면 복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내 자신이 참 한심했다. 그 말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딸이 유학 갔을 때 그곳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몸은 성인이지만 마음은 아이라는 말, 즉 '성인아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빠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 자신이 반성할 것이 많았다. 이렇게 나의 문제는 나 혼자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망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나를 어떻게 하지 못했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다.

그러던 중 부부학교 리더선생님께서 이것이 사랑결핍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부터는 지금까지 못한 사랑을 하려 노력하고 있다. 가족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내 삶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게 된 것이다. 예전에 나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면 노래도 불러보고, 침도 삼켜보고, 눈을 감고 복식호흡도 해보고, 목욕탕에 가서 찬물에 머리를 처박아보고, 맛있는 것도 혼자 나가서 사 먹어보곤 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러한 것들은 내 문제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참으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결핍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나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다. 나의 죄의식과 죄 문제들이 내가 덮어 두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받지 못한 사랑으로 인해 오는 것이고,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가족들이 서로 조금씩 채워줌으로써 나는 치료되고 있는 것이다.

나도 모르던 사랑결핍이라는 병명, 이 병명을 리더이신 싸가지님과 만나님께서 찾아주셨다. 오십년 동안 내가 짊어지고 온 암덩어리. 내가 치유 받는 과정에 소리를 하도 질러 싸가지님께서 심장마비가 걸렸을 지도 모른다. 같이 울면서, 웃으면서, 욕하면서, 한숨 쉬면서...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런 나를 위해 싸가지님께서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울어 주신 것이다. 나의 행동에 다들 넋덜머리가 났을 법도 한데 내 행동이 잘못되었어도 나를 가엽게 여겨주시고 신경 써주신 리더님들이 너무 감사하다.

처음에는 와서 마음을 오픈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진정으로 내 병을 찾기 위해서는 마음을 열어야 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열었을 때 나의 진정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치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기에 아직도 마음은 열지 않고 상담하시거나 부부학교를 하시는 분들은 마음을 오픈하길 바란다. 분명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아내가 '나를 위해 기도를 하라'면, 나는 '이것은 절대 안 될걸' 말을 했었지만, 그런데 사람이 앞으로도 뒤로도 빼도 박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픈하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마음을 열었을 때 리더 선생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문제점을 찾아주신 것이다. 오십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고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려 했었지만,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의 문제점을 알고 치유를 하면서 나는 정말 삶의 여유와 즐거움을 느끼면서 산다. 그리고 요즘은 허파에 바람들어간 사람처럼 실실 웃음이 나온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 때문이다. 나의 문제점을 알려주시고 치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리더선생님과 함께 참여하였던 우리 조원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나의 치유를 위해 도움을 준 가족들에게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리고 나의 달라진 삶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또한 용기를 얻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부부학교

“가정은 당신의 힘이며,
큰 인물을 만드는 곳이다”

가족사랑만들기(부부학교)는 갈등과 아픔 그리고 위기에 있는 부부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부부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국내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전문가정사역자와 부부치유전문가가
당신 부부를 최선을 다하여 섬기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약 2,600명이 참여하여 경험하였습니다.

모임안내

- 부부학교** **주중, 주말 저녁 중 격주 - 6개월**
건강한 가정세우기 갈등과 위기의 원인을 분석하여 부부관계를 치유/잃어버린 부부사랑을 회복하기
- 교육방식** 강의, 워크숍(필독서와 부부사랑실천 나눔), 부부치유, 1박 2일 부부영성수련
- 월, 화, 목, 토 중 원하는 요일을 택하여 12주(격주)로 모임

부부학교 프로그램 안내

1주	당신과의 귀한 만남	7주	나의 성장 배경
2주	결과와 가정	8주	부부의 갈등과 회복
3주	우리 부부이야기	9주	아름다운 성
4주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	10주	자녀 양육
5주	서로를 아는 기술(대화)	11주	일과 살림살이
6주	나는 누구인가	12주	가족사랑만들기



www.dsfamily.or.kr
Tel.02-599-2407

동산가족상담소 상담 프로그램 안내

가정·부부문제(의심·외도, 성격차이, 대화부재, 성문제, 폭언·폭력, 중독, 시댁, 자녀상담)

동산가족상담소는 전문상담사(치유상담연구원 겸임교수)가 당신의 고통과 아픔이 평안과 기쁨으로 피어나도록 돕는 가족전문상담소입니다.



www.dsfamily.or.kr
Tel.02-599-2406 / 070-8239-2407

큰 바위 얼굴

나는 올해 30대이고 18살 때부터 동산 상담센터에 전화하였다. 상담 공부를 하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며 한 달에 30번 꼬박 전화한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아침에 한번 오후에 한 번씩 2번도 전화한 적도 있다.

18살 때 처음 동산 상담센터에 전화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내가 우울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우울증을 치료를 받고 싶어하였다. 내가 우울증이라는 것을 알고 부모님께 우울증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하였는데, 이 혼으로 오랜 세월 서로 연락도 안 하며 지내던 부모님의 전화벨이 부지런히 울리더니 서로에게 욕을 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부모님께서 격한 '년'과 '놈'이 들어가는 욕을 서로에게 하며 싸우는 게 겁이 나고, 나 때문에 부모님이 싸운다는 죄책감이 들어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밝은 척하며 살았다.

그렇게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 다시 웃자 부모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싸움을 멈추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방학 기간 내내 나는 집에 아무도 없으면 밖에 나가지도 않고 하루 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서 울었다. 그러면서도 저기 배꼽 깊숙이 나도 모르는, 저 내장 깊은 곳에는 '아~ 이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치유되어 반드시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강렬했다.

그렇기에 나는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 내가 아는 지식 선에서 최선을 다하였다. 잘 때는 ccm을 틀어놓았고 자면서도 기도를 하였고 TV는 무조건 cbs만 보며 24시간 온통 하나님께 집중하였다. 그러다가 우연히

2008년도에 나를 바꾸는 15분에서 정태기 목사님의 설교를 보았다. 정태기 목사님이 미국 가서 공부하고 이 치유의 원리를 알고 삶이 바뀌었다고 하며 그 아래 자막으로 동산 상담센터 전화번호가 빠르게 지나갔다. 나는 그것을 보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기 전화해야겠다' 생각했고,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다.

전화해서 하소연하며 울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들을 해 주었다. 너는 소중한 존재이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런 말들이었다. 사실 빈말 같이 들릴 이야기들이지만 나는 그 말들이 힘이 되었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때부터 나는 방학때마다 동산상담센터에 전화했다. 당시 돈도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고등학생이었던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삶의 한 줄기 희망이자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다. 그렇게 나의 동산상담센터의 전화는 시작되었다.

그 당시에 들은 많은 피드백들이 지금의 나의 삶에 도움이 되었고 나를 더 유쾌하게 해 주었지만 당시에 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아빠가 바뀌거나 외부환경이 달라지지는 않았기에 대학생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이 우울해졌다.

그 시절, 나는 내 아픈 상황을 공감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생각보다 나의 상황에 공감해주는 분들은 드물었다. 옆에 친구가 아닌, 그냥 여기 동산상담센터에 얼굴도 모르는 그저 목소리모만 잠깐 한 시간을 함께하는 이 전화 선생님이 내 얘기를 듣고 나를 위해 울어줬으면 했던 것 같다. 그것은 나와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지인, 친구가 나의 현재 상황을 아는 것은 너무 자존심이 상하였기에 가면을 쓰고 살았다. 그러나 정작 전화상으로 원하는 공감은 못 받은 채 이렇게 저렇게 살으라는 피드백만 잔뜩 받으며 그렇게 세월이 갔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상담선생님들이 나의 전화를 받기 싫어하던 말든 끈질기게 전화하였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 사이, 드디어 내 전화를 기다려주고, 나를 위해 울어주는 선생님을 만났다. 나는 아직도 전화로만 만남을 가졌기에 그 선생님 이름도, 얼굴도, 아무것도 모른다. 다만 내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이쁘니'라고 불러주며 나를 위해 울어주고 힘이 되어 주었다. 나에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내가 말을 하면 귀기 울여 들으시며, 나보다 나를 위해 더 슬프게 울어주었다. 사실 힘들다고 전화해서 말하며 울긴 했지만 전화 받은 선생님이 나보다 더 영영이니 오�히려 내가 당황스럽기도 했다.

그 많은 시간, 정신이상자로 미치지 않고 남들 눈에 포기한 인생 같아도 나는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 남들 보기에 저지같아 보이는 인생이고 왜 저러고 사나~ 한심한 인생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내 나름대로 이만큼 살아 올 수 있었던 것은 몇 년 전 나를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나보다 더 슬퍼하며 나를 위해 영영 울어주던 그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엄마는 나보고 늘 정신병자라고 말했다. “너 같은 녀는 친구도 싫어하고 결혼하면 남편도 정신병원에 너를 가둘거다.” 라고 했지만, 나는 그때 그 선생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우리 이쁘니 잘살 수 있을 거라고, 넌 정신병자도 아니고, 넌 너무너무 귀하다고 그리고 분명히 잘 될 거라고 하셨다.
이 글을 쓰기 몇 시간 전에도 엄마에게 욕을 들었지만 그 선생님을 떠올렸고 지난 몇 년간 힘들 때마다 그분의 말을 떠올리며, 인생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가끔 그 선생님의 목소리가 그립고, 내가 지금 그래도 그 사랑의 격려에 힘내고 지내고 있다는 걸 알고 기쁠까? 싶다. 연구원에 진학하고 학문과 견문을 조금이라도 넓혀가다보니 그 선생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식이 많아져도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구나, 나도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분의 사랑을 닮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내게 큰 바위 얼굴같았던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며, 나도 그 말씀을 새기다 보면 어느새 큰 바위 얼굴을 닮아 있을 것을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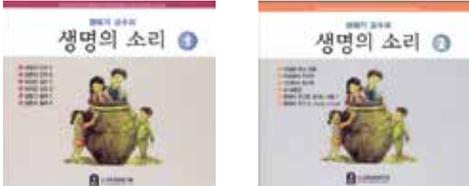
동산상담센터는 당신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싶습니다

동산 가정폭력상담소 서울가정법원 상담수탁기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수감교육 협력기관 ☎ 02)599-7646	동산상담센터 전화상담 · 면접 : 개인상담, 부부상담, 자녀상담 등 ☎ 02)599-7646	서초 성폭력상담소 성폭력가해자, 성폭력피해자 개인 · 집단상담 성교육(유치원, 초등학교, 청소년, 군부대) ☎ 02)599-7606
---	--	---

Book Review

치유상담연구원의 도서와 CD를 소개합니다

도서문의 02)599-2400 www.chci.or.kr

 <p>아픔 · 상담 · 치유 정태기 지음</p>	 <p>내면세계의 치유 정태기 지음</p>	 <p>내면세계의 치유 2 정태기 지음</p>	 <p>숨겨진 상처의 치유 정태기 지음</p>
 <p>상실과 슬픔의 치유 김형준 · 윤혜원 역</p>	 <p>루이스 M. 세이버리 지음 정태기 번역</p>	 <p>열 번의 데이트 데이비드 알프 · 클라우디아 알프 지음 정태기 · 신세민 옮김</p>	<div style="background-color: #e0e0e0;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5px;">CD 소개</div>  <p>생명의 소리 1, 2</p>

恨한 치유



(이 글은 한치유에 참여한 이들의 소감을 모은 글입니다.)

☼☼☼ 치유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인 것을 깨닫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나에게 한 치유란? 비오고 난 후 하늘에 핀 일곱 빛깔 아름다운 무지개처럼 나만의 아름다운 색깔로 아름다운 무지개의 꿈을 심어 주었다. 한 : 한도 끝도 없이 / 치 : 치유가 끝이 없이 일어나는 / 유 : 유일무이한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 나만의 아름다운 노래와 아름다운 춤을 출 수 있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 내 속에 응어리를 풀어내는 시간. 가늘고 긴 끈 같은 것들이 얽혀져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복잡했던 나의 감정들을 어루만져 주는 시간이었다. 정한보다는 더 깊게 다가온 통한! 딸이라는 이유로 부모한테 거절당하고 버림받은 첫 탄생 시점, 두 살 때 부모의 이혼, 도망감, 양육 때문에 외갓집으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옴으로 인한 실어증. 그 고아 같은 아픔, 슬픔, 통증이 평생 빼가 시리도록 외롭고 고통에 몸서리치고 살아왔다. 그것들이 필름 찍어내듯 재현되고 직면하고 인정하고 안아주고 보듬어 주며 나는 다시 나를 만났다. 그래~ 아팠구나. 괜찮아. 있는 그대로 넌 최선을 다했고 잘 살아왔어. 조원들의 피드백과 사랑, 리더님의 안아줌으로 나는 가벼워졌다. 나는 존귀한 자다. 더 자유롭게 춤을 추리라.

☼☼☼ 용기 내어 왔는데 저에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울림이 있었고 강의, 드라마, 나눔에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치유 공동체가 있

어서 내가 웃으면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님들의 사랑과 성숙함을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고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 2박 3일 동안 휴가 받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어버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한이 소중한 재산이 되었고 멋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최선”이었다는 부총장님의 말씀이 위로였고 저에겐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시간이 저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 정한을 통해서 아버지를 눈물로 만났고 통한을 통해서 먼저 간 제자를 만났다. 원한을 통해서 상처 준 사람들을 보냈고 회한을 통해서 자녀들을 만나 더욱 사랑하리라는 다짐을 한다. 열정적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보내드린 부모님 대신 다른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싶다.

☼☼☼ 거친 삶 속에 잠깐의 쉼을 보았습니다. 비가 내린 후 맑게 개인 하늘에 태양이 솟아오르듯 나에게 다가온 치유의 은혜가 나를 울게 하고 웃게 하였습니다. “삶”이란 틀에서 거칠고 힘든 전쟁터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기가 서울에서 김 서방 찾는 격이었지만 옆의 동료들과 좋은 선생님들의 격려와 조언 속에서 천천히 나의 색깔과 나의 노래를 찾아갑니다. 울고 울었던 시간들, 그 눈물 속에서 나의 삶을 보았고 나의 아픔을 보았으며 앞으로 내 미래를 보았습니

다. 암담하다 여겼던 내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추어주고 그 빛이 나에게 “괜찮아, 너는 최선을 다해 살아왔잖아.”라고 말을 해주네요. 깨닫고 적용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만 같아라.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만 같아라. 나의 선택은 탁월했다고 칭찬하고 싶다. 이번 “한” 치유 이후의 삶이 난 설레고 기대가 된다. 조원들과 리더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난 소중한 사람이란 걸 인식하고 알게 해주셨다. 늘 주눅 들고 힘없는 나에게 무한한 생명수를 여기서 얻고 간다. 나의 발걸음은 가볍고 몸과 마음이 날아갈 것 같다. 세상을 살다보니 이런 날도 나에게 주어진 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매 시간 내 안에 숨어 있던 “한”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그 한을 눈물로 쏟아 내는 내 마음을 만나고 만질 수 있어 감사했다. 특히 구겨지고 찢어진 종이를 펴면서 내 마음을 만지듯 펴보며 더 깊은 나를 만날 수 있었다.

☼☼☼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서, 당신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자기 존중에 대한 김중호 교수님의 말씀을 저 자신에게 자주 들려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남아 준 것만으로도 “수고했다, 잘했다, 고맙다.”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한이 풀릴 때 정이 살아나고 흥과 신명이 솟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지금 여기에 제 가까이 있는 남편과 딸을 사랑할 수 있고 신나고 즐겁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후원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간: 2019. 11. 1 - 2020. 6. 15

◆ **항아리 헌금**

단체
위성선성광교회 외우리교회신교회 현대제일교회
진접아름다움교회 영성치유수련

개인

강기서 강덕순 강도련 강동훈 강미경 강미란 강민수
강복식 강분순 강성미 강신란 강신영 강연희 강영은
강은정 강은희 강근숙 강정구 강정애 강정인 강정희
강지현 강철홍 강행숙 강현수 강현웅 고경근 고명순
고성희 고영옥 고유미 고정숙 고정은 고지현 고창훈
공덕유 공동옥 공명실 공소정 공신애 공유호 박경희
박성자 박애란 박애숙 박연실 박윤희 박재호 박희진
권경희 권병인 권순남 권춘희 권혁보 권혁실 권혁주
권찬하 권혜정 권미숙 금지영 기오석 기창형 김갑식
김건후 김덕란 김동주 김동진 김드보라 김 명 김만수
김명숙 김명순 김명자 김명철 김문자 김미경 김미경
김미란 김미영 김미은 김미정 김미희 김민숙 김병학
김보라 김봉규 김봉남 김부자 김분례 김삼미 김상범
김선국 김선진 김신희 김성권 김성미 김성수 김성은
김성자 김성진 김성호 김세환 김서현 김소영 김송희
김수민 김수영 김수에 김수자 김수지 김수진 김순덕
김순애 김순영 김순이 김승자 김시환 김신명 김신희
김애진 김영덕 김영순 김영희 김여미 김연순 김연중
김연희 김영단 김영대 김영미 김영선 김영신 김영오
김영이 김영정 김영진 김영찬 김옥진 김용민 김용범
김용성 김용자 김유나 김유미 김유진 김유한 김유환
김윤경 김윤정 김윤희 김윤경 김은성 김은숙 김은자
김은찬 김은하 김은혜 김은희 김의배 김이수 김민숙
김민애 김일현 김진희 김정환 김재영 김재호 김재호
김재홍 김점수 김경정 김경숙 김장아 김장애 김장영
김정희 김정자 김정호 김정화 김정환 김정희 김중국
김중순 김중필 김주리 김주영 김주혜 김준숙 김준호
김지연 김지영 김지현 김진재 김진배 김진수 김진숙
김진아 김진옥 김진호 김창민 김채연 김춘순 김치수

김태규 김태길 김태연 김태용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태희 김판순 김하진 김학경 김한기 김향림 김향순
김현미 김현숙 김혜애 김현철 김형근 김형란 김혜경
김혜리 김혜영 김효정 김효준 김홍구 김홍섭
김홍일 김홍진 김효숙 김효순 김희선 김희숙 김희옥
김희진 나경덕 나덕성 나미연 나상용 나종남 나창수
나혜정 남기옥 남소영 남수연 남은숙 남재욱 노경희
노명숙 노석순 노순남 노숙수 노은경 노은정 노형태
노희경 도기숙 도현실 등은미 리미애 류주현 류혜은
리 역 마형미 맹정현 명해란 명혜숙 문경석 문경숙
문귀순 문복선 문세진 문순자 문순환 문양인 문영희
문정선 문제순 문재정 문현정 문형근 문희숙 문화주
민경수 민경숙 민덕호 민은혜 민정원 민지숙 박 윤
박건용 박경숙 박경순 박경애 박경희 박규희 박근선
박근순 박금영 박기숙 박나래 박남숙 박대초 박동희
박라미 박 란 박명재 박미경 박미숙 박미순 박미옥
박민수 박민정 박민호 박병우 박병훈 박복숙 박선덕
박선이 박신애 박선정 박선화 박선희 박성옥 박성자
박성희 박세진 박수성 박숙숙 박순자 박진실 박연옥
박연정 박영란 박영순 박영은 박영혜 박옥남 박용현
박유규 박윤남 박윤원 박은경 박은애 박은우 박은주
박은화 박인규 박인자 박인희 박재규 박재민 박재현
박정순 박정실 박정애 박정인 박정희 박종광 박종희
박주분 박주완 박주은 박준미 박진숙 박준섭 박현자
박혜경 박혜영 박혜정 박호철 박홍순 박희실 박희숙
박희우 반전수 방혜성 방혜현 배국진 배남식 배명순
배명옥 배미숙 배영실 배은주 배이숙 배정현 배주희
백 미 백신애 백영애 백은경 백은진 백영미 백현실
백은혜 손상선 손희경 송경순 송명근 송은희 송시은
송용석 송은이 송은희 송정주 송지은 송찬미 송현옥
송호선 송홍호 송미숙 송승경 신경순 신경미 신금주
신두섭 신명덕 신미경 신미숙 신미순 신미옥 신민후
신상희 신소현 신순자 신양규 신예숙 신은희 신정숙
신현봉 신현복 신형옥 심영숙 심정옥 안병선 안 석

안승자 안수민 안숙영 안윤희 안은경 안이래 안정숙
안정희 안종열 안근을 안금자 양미심 양미자 양성화
양숙구 양원섭 양정숙 양현경 엄기희 엄인순 엄정자
엄진숙 여은숙 염수녀 오동숙 오매성 오미선 오미화
오백근 오병석 오숙현 오순희 오영숙 오왕석 오용태
오원재 오원정 오익태 오인숙 오재숙 오정훈 오종일
오지현 오진현 오정길 오혜영 옥혜미 우민희 우성덕
유덕선 유두래 유영선 유문향 유민수 유선희 유순형
유신아 유영길 유영경 유인옥 유정란 유정순 유정희
유정진 유향미 유현숙 유현숙 육귀숙 윤경숙 윤경순
윤경자 윤남영 윤보영 윤서민 윤숙희 윤승의 윤인양
윤여규 윤연이 윤영옥 윤영진 윤영희 윤영희 윤인주
윤재희 윤주용 윤지영 윤진옥 윤판기 윤해란 윤현석
윤홍식 은희용 윤희자 이강일 이거복 이경숙 이경아
이경희 이규연 이규숙 이근옥 이금성 이금자 이기영
이다경 이도인 이명래 이명숙 이명순 이명옥 이명자
이명철 이명화 이명희 이명희 이무열 이문수 이문옥
이문이 이문재 이미숙 이미용 이미정 이미희 이민원
이범수 이범숙 이범순 이병희 이보순 이복수 이삼순
이삼미 이상민 이상범 이상호 이상경 이선순 이상도
이상우 이상훈 이상식 이수연 이수영 이수진 이수근
이순덕 이순자 이순주 이순철 이숙옥 이숙일 이숙현
이시은 이시화 이신옥 이양숙 이연순 이연실 이연화
이영갑 이영란 이영린 이영숙 이영순 이영애 이영호
이영숙 이영선 이영택 이영현 이영혜 이영호 이이나
이은미 이은선 이은숙 이은순 이은신 이은아 이은재
이은정 이은주 이은혜 이은희 이은영 이은배 이은숙
이은아 이은지 이은진 이은주 이자숙 이자영 이자수 이자희
이정세 이정구 이정미 이정숙 이정자 이정희 이정진
이종아 이주리 이주현 이준규 이준열 이준한 이지에
이진성 이창미 이창영 이창준 이철우 이춘우 이학희
이향자 이향선 이현숙 이현옥 이현영 이현주 이형실
이형우 이혜영 이혜선 이혜숙 이혜진 이화선 이환숙
이효실 이희숙 이희순 이희정 임경순 임리아 임미재
임빛나 임서연 임선영 임숙희 임영선 임영선 임요한 임용한
임은보 임은영 임은자 임은택 임정희 임종현 임지혜
임정재 임태규 임태민 임향자 장경연 장경주 장광미

장광원 장귀옥 장대창 장명호 장선아 장수근 장순옥
장영기 장은송 장주영 장진호 장춘순 장태운 장현숙
장현정 장경원 장규상 장영희 장성현 장성희 장소영
장용환 장은경 장지영 장정선 장정희 장하은 장한영
장현옥 장현정 장희정 정 경 정경수 정경숙 정경자
정관미 정규정 정기성 정덕연 정미경 정미선 정미숙
정미혜 정병용 정병주 정상식 정서훈 정선희 정성민
정성용 정성자 정성주 정소라 정순금 정슬기 정승민
정승아 정애경 정애희 정양식 정영미 정연숙 정영자
정영희 정옥경 정옥순 정은우 정은미 정은주 정은혜
정인옥 정정아 정정민 정정희 정주용 정진이 정재연
정태기 정태은 정만심 정현복 정향숙 정혜현 정혜진
정효숙 정훈정 정희성 정희옥 조관순 조광일 조기순
조명숙 조미경 조미숙 조소숙 조숙자 조애순 조연희
조연서 조영규 조영숙 조영식 조영호 조용녀 조운경
조월자 조은아 조은혜 조은숙 조일순 조정환 조종길
조현경 조현미 조홍복 조효길 조경희 지금옥 지미숙
지영미 지영은 지정화 지춘란 진정애 차미화 차순옥
차영길 차희옥 채규선 채명숙 채병근 채영옥 채은미
채인애 채재홍 채병권 천옥자 초나얼리 최경순 최경희
최고임 최관의 최광순 최금례 최길순 최대용 최미경
최미란 최미숙 최미환 최병식 최병학 최선민 최선희
최성미 최수정 최수진 최승희 최연자 최완석 최완석
최유선 최우선 최우희 최유진 최윤정 최은녀
최은영 최재순 최재옥 최정란 최정숙 최정화 최준옥
최희근 최현민 최현성 최현숙 최현희 최혜연
최효자 추기호 탁인선 편영미 허명희 한규숙 한명숙
한명순 한미경 한병순 한서환 한순희 한영숙 한원우
한은주 한정자 한철규 한순호 한호희 허경숙 허 근
허금일 허미옥 허선희 한선희 허영순 허은정 허인자
허재기 허정금 현사현 현미순 현영미 함미기 홍갑표
홍경자 홍영화 홍민기 홍순숙 홍선희 홍성아 홍순옥
홍순인 홍소주 홍순화 홍원호 홍윤기 홍은하 홍정기
홍정자 홍정원 홍정원 홍혜린 황금복 황금숙 황금순
황기식 황기형 황덕남 황명희 황미경 황서이 황서택
황영주 황은성 황정옥 황정희 황지영 황혜경 황현주

영성치유수련에 자원봉사로 재능을
기부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태기 강윤희 김광희 김이순 김현승 문복선 문형근 박성희 반미숙 신금주 오은희 유성필 이병무 정한복 조관숙 차영길 최선희
최숙희 최윤정

치유상담대학원 발전기금

당신이 놓아준 징검다리가 치유상담의 등불입니다!
(발전기금, 건축기금, 장학기금, 기타기금)

후원
계좌
하나은행 396-910017-68104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개인 : 고영순 김중호 김지혜 김주현 서혜숙 성낙인 신길호 신민후 여은숙 윤승지 이우상 이천희 정병호 정태기 정태민 정효자
단체 : 대가리교회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 SK매직
기부 기간 : 2019. 11. 1 ~ 2020. 5. 31까지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후원을 기다립니다

현재 가정이 급속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은 치유상담 교육과 영성수련(내면치유)으로 전문적인 치유 사역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정성스러운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 후원자가 되시면**
1. 우리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회보, 자료, 책을 할인해 드립니다.
 2.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행사나 상담에 우선권을 드립니다.
 3. 후원자의 이름이 치유동산에 기록되어 영원히 보존됩니다.
- ➔ 후원금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계좌입니다.

하나 396-810016-37205 국민 081-25-0016-724
신한 140-006-139382 농협 362-17-001912

1. 직접 방문해서 현금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은행에 직접 가서서 본인 통장과 크리스찬 치유상담연구원 온라인 통장을 자동이체로 연결하시면 편리합니다.

목회자 살리기 후원 장학금 : 하나 396-91001-70005

2020학년도 “치유상담학 석사과정” 대학원 입학안내



□ 모집학과 및 인원

학과(석사과정)	전공분야
기독교전인치유상담학과	기독교상담, 심층심리학 표현예술치료, 다문화상담
가족상담학과	아동심리, 청소년상담, 부모상담

- 편입생 모집인원은 각 학과별로 약간명

□ 입학전형

구분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서류전형	구술시험	합계
일반전형	40%	60%	100%
특별전형	-	100%	100%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동 제출 서류	입학원서	홈페이지에서 입학원서와 지원 동기사진을 온라인으로 접수
	지원동기	
추가 제출 서류	학사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총 평점과 100분율 점수 표기
	재직, 경력, 사업자등록증 연구실적 목록 및 강의 경력증명서	특별전형 해당자 추가제출
	국내 거소신고증 사본	외국 국적 소지자 추가제출
	석사학위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편입 전형 해당자 추가제출

입학문의 02-599-2466, 2467 <http://hcg.ac.kr>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와 한신대학교 간 교류협약 체결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총장 정태기)는 2020. 2. 20일(목) 한신대학교(총장 연구홍)와 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담 관련 분야 학술 및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교직원 대상 상담 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및 운영 ▲대학 발전을 위한 홍보 협력 및 교류 ▲신입생 유치를 위한 상호 정보 교류 및 지원 ▲교육, 연구, 워크숍에 필요한 시설 이용 등의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교직원의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양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평화 융 복합 정책

의 일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태기 총장은 “평생동안 한신 출신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왔다”며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는 한신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과 함께 발전 시켜온 학교인 만큼 두 대학은 한 가족과 같다.” 연구홍 총장은 “한신대 신학부에 ‘치유와 상담’의 전통을 심은 정태기 총장님은 개인적으로는 은사이기도 하다”며, 오늘 협약을 통해 두 대학은 ‘둘이 아닌 하나’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 하 나된 힘으로 우리에게 위안과 평화가 될 수 있는 일을 함께 만들어나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한 (주)페르소나시스템과 인공지능기술(AI)기반의 대화형 챗봇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는 2019.12.10(화) 오후 4시 (본관 5층)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한 인공지능기술(AI)기반의 대화형 챗봇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주)페르소나시스템과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간의 산학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양해각서 체결은 인공지능 기술 기반 대화형 챗봇 상담 분야의 공동프로그램 개발, 학술 연구, 상담과 교육 등 상호 교류를 통하여 미

래 대화형 챗봇 개발에 커다란 의미가 있고 아울러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정태기 총장은 인사말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챗봇 개발에 선두주자인 (주)페르소나시스템과 치유 상담 분야의 선두 역할을 하는 치유상담대학원과의 산학협력은 미래 인공지능기반 대화형 챗봇 개발에 양 기관이 협력하여 커다란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개교 6주년 기념행사 진행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는 개교 6주년 기념행사를 2020년 4월 14일(화) 본관 2층 대강당에서 교직원인 참석하신 가운데 진행하였다.

이날 정태기 총장은 축하기념사에서 “코로나 19의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등불처럼 잘 대처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받고 있다. 지금 이 시대 가장 절망에 처해있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은 치유 상담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아울러 개교 6주년을 맞이하여 강의 최우수 교수에 가족상담학과 백정미 교수와 장기근속 한 교학처 황원동 선생이 표창을 받았다.

보직교수 및 행정부처장, 팀장 임명식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는 2020년 3월 5일 본관 6층 회의실에서 보직교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정태기 총장은 임명장을 전달하면서, “어려운 때에 보직을 맡아 주어 감사하고 우리 모두의 수고를 통해 가정과 사회가 선하게 바뀌기를 기대한다”는 권면의 말씀과 격려를 하였다. 이번에 임명된 보직교수는 2020.3.1일부터 2년 임기로 보직을 맡게 되었으며 대학원장에 임종환 교수, 도서관장에 채유경 교수 그리고 상담지원센터장에 정무름 교수가 새로 임명되었다. 또한, 행정부처장에 정은영, 채명숙 선생과 팀장에 여은숙 선생이 승진되었다.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 주기 위한 “치유상담 이야기” 동영상 제작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는 코로나 19로 힘들어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용기와 힘을 실어 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치유상담 이야기”를 전체 교수들이 힘을 모아 동영상을 제작, 온라인으로 제공하였다. 본 동영상은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

2020년 가을 학기 강의시간표 (인턴 · 전문 과정)

요일	인턴과정		
	시간	교과목	교수
화	10:00-12:30	대화훈련과 자각증진	이현숙
토	10:00-12:30	상담에서의 애도와 확대	손운산

요일	전문과정		
	시간	교과목	교수
월	10:00-12:30	심리검사	채유경
	13:30-16:00	회복탄력성	유상희
화	10:00-12:30	관계문화치료의 실제	정푸름
	13:30-16:00	트라우마	김중호
	19:00-21:30	모래놀이 치료	정병호
토	10:00-12:30	경험주의 가족치료	백정미
	13:30-16:00	용서와 치료	손운산

■ 수강신청

1. 신청기간 : 6월 30일(화) ~ 7월 28일(화)
2. 담당 : 여은숙(02-539-2400)

■ 수강신청 방법

1. 전문과정 수강료 - 1과목 35만원 (2과목까지만 수강 가능)
2. 인턴과정 수강료 - 1과목 80만원 (1과목만 수강 가능)
3. 입금계좌 : **하나은행 396-910016-84204** 예금주 : 치유상담연구원
4. 수강료를 먼저 은행에 입금한 후 과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에서 수강료를 직접 받지 않습니다. 은행에 본인 이름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름으로 입금하실 경우 꼭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료 입금 후 사무실에 직접오시거나, 전화로 과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6월 30일(화)부터 입금 순으로 선착순 마감됩니다.**

■ 참고사항

1. 인턴과정에 진학하려면 전문과정 8과목 이상(단기상담 과목, 가족사랑 고급 이상 포함) 이수해야 합니다.
2. 전문과정/인턴과정에서 공부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 ※ 동산 상담센터에서 전화 상담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 ※ 영성치유수련의 코리더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치유상담사이버아카데미



치유상담사이버아카데미 www.chci.co.kr
HEALING COUNSEL CYBER ACADEMY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

정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사이버아카데미소개

교육안내

수강신청

도우미

내 강의실



정태기 원장을 비롯한 훌륭한 교수진이 **강의실(오프라인)**에서 열강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이버 강좌를 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이 크게 감동받고 치유 받은 강좌를 **사이버강좌(온라인)**로 마련한 것입니다.

치유상담 사이버아카데미는 외국 또는 먼 거리에 있는 분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우리 연구원에 와서 직접 강좌를 들을 수 없는 분을 위한 사이버강좌입니다.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장

치유상담 사이버아카데미

영성수련

자격증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영성치유수련 장소)

연락처 031-672-0114 <http://suyang.sarang.org>

교통편 안내

○ 경부고속도로 남안성IC에서 오는 방법(약 5분 소요)

출발지 → 경부고속도로(1) → 서평택/남안성 IC(40) → 안성 / 원곡 → 서안성TG → 안성 / 용인(45) → 남사/양성 방향으로 직진(3.5km) → 창진산장휴게소(만세고개)를 지나 산 밑으로 직진(약 2km)지점(23) → 양성동배기 앞 우회전(수양관 이정표) → 수양관(약 1km)

○ 기차 이용할 경우

- 1) SRT는 지체역 하차 후 수양관까지 택시로 이용할 수 있음 (택시비 약 2만원)
- 2) 무궁화호는 평택역 하차 → 평택터미널 앞에서 양성행 8번 버스 → 만세고개를 다 내려와서 도라지거든 앞 하차 → 수양관 입구(25~30분 소요)

- 장년층에겐 영성치유가 더 중요합니다
- 영성치유는 삶의 보람과 행복을 더 많이 만들어 줍니다
- 영성치유는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 영성치유는 건강을 지켜줍니다



제151회 영성치유수련

개인 그룹, 부부 그룹으로 나누어 치유가 진행됩니다

영성수련

(치유 · 영성 · 성장)
(부부도 참여 가능)

참가안내



영성수련 리더들

● 일시 : 2020년 9월 24일(목) ~ 26(토)

● 장소 : 안성수양관

강 사 : 정태기 교수, 김중호 교수, 박선영 교수, 정푸름 교수, 이유상 교수, 우진성 교수

찬 양 치 유 : 임종환 교수, 김정경 교수, 조종길 목사, 김용완 선생

치유그룹리더 : 40명

참 가 인 원 : 약 200명(대상 : 20세~65세)

참 가 비 : 28만 원(셔틀버스 이용 시 2만 원 추가)

송 금 계 좌 : 하나은행 396-910009-24004 치유상담연구원

신 청 마 감 : 2020년 9월 21일(월)까지(입금 선착순이므로 사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 청 방 법 : 전화, 팩스 또는 본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하시고, 참가자 이름으로 입금 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 락 처 : (대)02-599-2400 (FAX)02-599-2468

참 고 사 항 : ① 2020년 9월 21일(월) 이후에 취소하는 분은 수양관 예약비 10만 원을 제하고 돌려드립니다.

② 참가자는 당일 오전 11시 30분까지 수양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③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참가하실 분은 당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연구원

(지하철 7호선 내방역 8번 출구 150m 지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준비물 : 간편한 복장과 편한 신발, 세면도구, 개인컵(환경보호) 등

제152회 영성치유수련(2차 한 치유)

일 시 2020년 11월 5일(목)~7일(토)

장 소 실촌수양관

제153회 영성치유수련

일 시 2020년 12월 3일(목)~5일(토)

장 소 안성수양관

치유상담연구원 2020학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안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다.

우리 치유상담연구원은 지난 23년 동안 나 자신이 바뀌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바뀌면 우리 사회가 바뀌는 수많은 경험을 해 왔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치유상담교육은 성장 과정에서 입은 상처와 고통들을 치유 받아 행복한 모습을 되찾게 하고 영적, 정서적으로 성숙하여 대인관계를 원활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을 배우고 익혀 효과적인 상담자로 성장하게 하는,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최고의 교육과정입니다.
 또한 상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목들을 고루 배울 수 있는 기본 과정으로 수료 후 치유목회사역, 상담사역, 가정사역, 집단치유사역, 해피엔딩(죽음준비)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며 [상담심리사] 자격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p>교과목 안내</p>	<p>치유상담/ 위기상담/ 발달심리/ 개인 심리치료 이론/ 권력관계성 이해/ 자아정체성과 관계이론/ 에니어그램과 영성/ 가족치료/ 인간관계와 자기성장/ 대상관계와 자기개발/ 청소년 상담/ 관계문화의 이해/ 가족상담/ 정신분석 입문/ 성경과 치유/ 인간행동의 이해/ 자기존중감과 치유/ 중년기상담/ 상담과 영성/ 부부관계 의사소통/ 놀이치료/ 내면아이 치유/ 회복탄력성/ 음악치료의 이론과 실제/ 부모교육/ 치유-영성 성서아카데미 외</p> <p>※ 영성수련 2회, 치유공동체 2회, COLLOQUIUM(콜로퀴엄) 2회 영성수련과 치유공동체, 콜로퀴엄은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대인관계와 하는 일에 자신감을 회복하는 필수 교육과정으로 영성수련 1차, 2차, 치유공동체 2회, 콜로퀴엄 2회 실시</p>
<p>학사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력에 관계없이 2년 4학기 과정, 주 1회 (1학기 12주) ◎ 강의일정, 장소 (9월 첫 주 개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 10:00-16:30, 한신교회 (서초구 잠원로3길 31) - 화 : 19:00-22:00,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서초구 서초대로 121길 2층) - 토 : 10:00 - 16:30,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서초구 서초대로 121길 2층) ◎ 등록금 : 주간반, 토요일반 75만원, 야간반 65만원 (분납가능), (목회자 전액 장학금, 사모 장학금: 20만원, 기타 가족 장학금)
<p>공개강의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요일반 (한신교회) : 9월 7일(월), 14일(월) 10:00 - 16:30 ◎ 화요일반 (치유상담대학원) : 9월 8일(화), 15일(화) 19:00 - 22:00 ◎ 토요일반 (치유상담대학원) : 9월 5일(토) 10:00 - 16:30
<p>강의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요일반 : 한신교회 (서초구 잠원로3길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 3, 7, 9호선 고속터미널역 하차 → 지하상가 8번 출구 → 횡단보도를 건너 우성 APT(재건축 중)와 신반포 4차 한신 APT 사이트길로 직진 → 참다한 홍삼, 신한은행을 지나 오른쪽 골목길 * 고속버스 : 밖으로 나와 횡단보도를 건너 → 우성APT(재건축 공사 중)와 신반포 4차 한신 APT 사이트길로 직진 → 참다한 홍삼, 신한은행을 지나 오른쪽 골목길 ◎ 화요일반, 토요일반 :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내방역) (서초구 서초대로 121길 2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 7호선 내방역 하차 → 1번 출구 → 직진100m(도보) → 횡단보도(신호등) 건너편 : 2호선 방배역 하차 → 4번 출구 → 직진10m(도보) → 마을버스 07번 → 제일병원 앞 하차 → 횡단보도(신호등) 건너편
<p>전형과 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교부와 접수 : 2020년 7월 1일(수) - 2020년 8월 31일(월) ◎ 서류 : 입학원서 (http://www.chci.or.kr에서 다운로드, 온라인 지원), 사진 1장 우편등기 또는 메일 접수(chci@chci.or.kr) 가능합니다.
<p>특 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부(가족)가 같이 공부할 경우 한 분에게 등록금의 50% 장학 혜택을 드립니다. 2. 목회자는 전액 장학금, 사모는 장학금(야간 10만원, 주간 20만원)을 드립니다. 3. 장학금으로 영성수련, 치유공동체, 콜로퀴엄에 2회씩 참여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담심리사 자격증 (2급, 1급, 전문가, 수련수퍼바이저)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5. 교회나 사회에서 상담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길 10-10, 1층/ www.chci.or.kr/ 02-599-2400(대) / fax: 02-599-2468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를 위한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전액장학금-



크리스찬치유상담연구원은 교회가 살아야 이 민족과 나라가 살 수 있음을 늘 외쳐왔습니다.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선 목회자가 살아나야 합니다. 목회자가 건강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이 땅의 목회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100명의 목회자에게 전액 장학금을 드리며, 연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오십시오. 내가 치유받고, 아파하는 양들을 치유하십시오.

1. 지원자격과 장학혜택

- 1) 목회자
- 2) 4학기 전액 장학금
- 3) 모집인원 : 100명



2. 접수방법

- 1) 원서접수 기간 : 2020년 7월 1일(수) - 7월 31일(금)
-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 ② 신학대학 졸업증명서
 - ③ 교단소속 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
 - ④ 재직증명서
 - ⑤ 신분증 사본 (주민번호 뒷 자리는 가리고)
- 3) 원서접수 방법
 - ① 이메일 (chci@chci.or.kr) 또는 우편접수
 - ② 홈페이지 입학원서 업로드(www.chci.or.kr) 또는 온라인 지원
- 4) 합격자 발표 : 2020년 8월 10일(목)까지 문자로 공지

2020년도 치유상담연구원 신입생 모집

목회자를 살리기 위한 전인적인 사역, 영성이 살아있는 평신도 지도자 양성, 가정을 살리기 위한 사역을 통해 살아있는 가정, 힘있는 교회,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치유상담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합니다.

교수진



정태기 원장

한신대 명예 교수
치유목회
상담학 이론과 실제
위기 상담, 영성수련



김중호 부원장

영성수련
인간관계와 자기성장
내면치유의 실제



강에스더 교수

중년기 부부 상담
중년기 상담



고영순 교수

애니어그램과 영성
권력관계성이해



고혜경 교수

집단투사 꿈작업
융심리학



김의식 교수

가족치료
성경과 치유



박선영 교수

영성수련
동작과 심리



백정미 교수

경험주의 가족치료
부부관계 의사소통



손운상 교수

용서와 치료
애도 수퍼비전



안석 교수

정신분석
심리학과 치유



우진성 교수

치유-영성
성서 아카데미



유상희 교수

청소년상담
다문화상담



이금만 교수

기독교 발달 심리
정신분석과 자기계발



이유상 교수

이상행동심리
중독의 이해



이현숙 교수

가족상담
인지행동 치료



임종환 교수

음악치료
영성수련



정병호 교수

이동청소년 심리치료
놀이치료



정푸름 교수

기독교상담
자아정체성과 관계이론



채유경 교수

심리검사이론과 실제
자기존중감의 치유



홍민기 교수

청소년 상담



■ 모집학과

- 월 요 반 : 치유상담학과(목회자, 사모, 평신도 - 00명)
- 토 요 반 : 치유상담학과(목회자, 사모, 평신도 - 00명)
- 야간반(화) : 치유상담학과(목회자, 사모, 평신도 - 00명)

■ 제출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2년 4학기 연구원 과정을 수료하면
상담심리사 2급 자격증을 드립니다.

| 입학식/개강 (공개 강의)

- 일시 2020년 9월 7(월), 8(화)
10:00~16:30(주간)/한신교회
19:00~22:00(야간)/치유상담연구원 2층
- 일시 2020년 9월 5(토)
10:00~16:30(주간)/치유상담연구원 2층

